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2

박영민 외

갈래 익히기

소설

6~7쪽

- 1 (1) ○ (2) ○ (3) × 2 (1) 주제 (2) 인물 3 ③ 4 (1) 배경
(2) 중심 생각 (3) 입체적 구성 5 1인칭 주인공 시점 6 ⑤

- 1 (1)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쓴 이야기이다.
(2) 소설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 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삶의 의미와 진실이 담겨 있다. 이를 소설의 진실성이라고 한다.
(3)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 2 (1) 소설은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 따라서 갈등을 파악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인물의 마음속 또는 인물과 다른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갈등이라고 한다. 인물이 갈등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를 알 수 있다.
- 3 제시된 글에서 갈등은 호부호형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현실에 갈등하고 있다.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는 신분제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신분제 사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첩의 자식인 길동이 겪은 갈등은 인물이 속한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 권력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외적 갈등 중 인물과 사회의 갈등에 속한다.

- 오답 풀이 ①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반대되는 감정이나 바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갈등이다.
② 인물 간의 가치관이나 성격, 태도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④ 인물에게 주어진 운명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⑤ 인물이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과 부딪쳐 싸우며 발생하는 갈등이다.

- 4 (1) 소설에서 구성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것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구성의 3요소라고 한다.
(2)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한다.
(3) 소설의 구성 방식 중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 5 제시된 장면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등장하여 '나'의 심리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6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결말'에서는 앞서 고조되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새로운 사건이 제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설화

8쪽

- 1 (1) × (2) ○ 2 (1) ㉠ (2) ㉡ (3) ㉢ 3 ④

- 1 (1) 설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말로 전해져 오다가 기록된 이야기이다.
(2) 설화는 말로 전해지면서 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설화의 집단성이라고 한다.
- 2 (1) 신화는 한 민족에서 신성시되는 민족의 기원이나 건국 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2) 민담은 사실적인 근거에 구애받지 않고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교훈과 흥미를 주는 이야기이다.
(3) 전설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사물 또는 비범한 인물의 업적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물과 함께 다룬 이야기이다.
- 3 전설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자연물이나 구체적인 사물 또는 인물의 업적 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평범한 인물이 운명을 개척하며 독자에게 교훈과 흥미를 주는 것은 민담이다.

시나리오

9쪽

- 1 (1) 대본 (2) 희곡 (3) 행동 2 지시문 3 ⑤

- 1 (1)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영상으로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쓴 대본이다.
(2)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이다. 반면 시나리오는 촬영 및 편집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희곡에 비해 시간, 장소, 등장인물 수와 관련된 제약이 적다.
(3) 시나리오는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사건이 전개된다. 이 때 인물의 행동은 주로 지시문을 통해 나타난다.
- 2 밑줄 친 부분은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에 해당한다. 지시문은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카메라의 위치나 음향,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는 구성 요소이다.
- 3 무대 위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덜 받는다.

설명하는 글

10쪽

1 (1) × (2) ○ (3) ○ 2 처음 3 ③

- (1)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객관적인 글이다. 글쓴이의 주장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므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간결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해야 한다.
(3) 설명하는 글의 특성 중 하나인 사실성은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설명하는 글은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을 밝히고, 글을 쓴 동기와 목적, 방향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서는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대상의 개념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정의'이다. 제시된 글에서는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流星雨)'라고 한다.'와 같이 유성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②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뉘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⑤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주장하는 글

11쪽

1 (1) 주장 (2) 결론 (3) 근거 2 본론 3 ⑤

- (1)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가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2)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과 글을 쓴 목적을 밝히는 서론,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본론, 본론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결론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3) 글쓴이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주장과 이유, 근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제시된 내용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과 관련된 주장의 이유와 근거들이다.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는 주장하는 글의 '서론-본론-결론'의 구성 중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의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후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개요를 쓴다(㉢). 그리고 앞서 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쓴 글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고쳐 쓰며(㉤), 글을 완성한다.

토의

12쪽

1 (1) ○ (2) × (3) ○ 2 사회자 3 ②

- (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2)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3) 토의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협력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우주는 토의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자의 순서를 지정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가 맡은 역할이 사회자임을 알 수 있다.
-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는 찬성과 반대나 나누는 질문으로 토의가 아닌 토론에 적합한 질문이다. 토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므로,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없는 주제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의의 주제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설

13쪽

1 (1) × (2) ○ (3) ○ 2 메시지 3 ⑤

- (1) 연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말하기 방식이다.
(2) 연설은 연설자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여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연설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연설자, 청중, 메시지가 있다. 연설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청중은 연설을 듣는 사람, 메시지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메시지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비언어적 표현은 연설자의 시선, 표정, 몸짓, 자세, 복장 등을 의미한다.
- 연설의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연설에서 다룰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결론부에 해당한다.

1 정보의 숲에서 길을 찾기

01 요약하며 읽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19쪽

- 1 (1) 중심 내용 (2) 삭제 (3) 포괄
- 2 (1) ○ (2) × (3) ○
- 3 (1) 과학적 (2) 별뿔별
- 4 목적, 유성우
- 5 (1) 옥황상제 (2) 처녀 (3) 북
- 6 (1) × (2) ○

제재 ① 「아름다운 별뿔별의 비밀」

스스로 확인하기

22~25쪽

- (1) 별뿔별 (2) × (3) ○

내용 확인 문제

22~25쪽

- 1 ③ 2 ② 3 ③ 4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 5 ④

- 1 5문단에서 우주 먼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가면,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유성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3문단에서 낮에는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7문단에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뿔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8문단에서 별뿔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지구에 빨려 들면서 불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별뿔별이 우주에 먼지를 일으켜 다양한 자연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문단에서 별뿔별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밝히고 있다.
 ④ 6, 7문단에서 별뿔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별뿔별을 과학적인 현상 외에 소원을 이루어 주는 존재, 불운의 존재 등과 같이 다양한 상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⑤ 7문단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별뿔별을 위대한 존재의 종말로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서 별뿔별은 행운의 상징이 아닌 부정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 4 6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고, 이와 비슷하게 일본, 칠레, 필리핀에서도 별뿔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5 8문단에서 글쓴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뿔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별뿔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6~29쪽

- 1 ④ 2 ⑤ 3 ② 4 ⑤ 5 읽기 목적 6 ⑤

- 1 문단별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반복되거나 덜 중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만약 겉으로 드러난 중심 문장이 없다면 문단의 중요 내용을 담아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단의 첫 문장이 중요한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알맞은 방법이 아니다.
- 2 8문단에서는 별뿔별의 과학적 가치가 아닌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상상만 하던 별뿔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 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 8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 3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관련 있는 내용끼리 도형이나 선으로 묶은 것을 '내용 구조도'라고 한다. 내용 구조도를 만들면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4 글 전체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할 때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정리한다. 요약은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덜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5 우주는 전체 글에서 2문단과 6, 7문단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려고 한다. 이는 별뿔별의 정체와 별뿔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려는 읽기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6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요약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찾아야 한다. 찾은 문단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하여 요약을 완성한다.

제재 ② 「복 타러 간 총각」

스스로 확인하기

30~35쪽

(1) 설화 (2) ○ (3) × (4) ○

내용 확인 문제

30~35쪽

1 ④ 2 인정 3 ② 4 ③ 5 ②
6 제 코가 석 자

- 1 글의 '처음' 부분에서 총각은 중머슴, 상머슴이 되지 못하고 풀머슴만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억울해서 하늘나라로 직접 찾아가 복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 2 총각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처녀, 동자들, 노인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옥황상제를 만나면 해결 방법을 물어봐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통해 총각은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인정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3 '가운데 1' 부분에서 이무기로 천 년을 살고도 승천을 못하는 노인의 사연을 들은 총각이 노인을 짝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타난다. 노인이 총각의 신세를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총각이 노인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 4 '가운데 2' 부분에서 옥황상제는 복 주머니가 텅텅 비어 총각에게 줄 복이 없자, 총각이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기로 한다. 총각은 처녀, 동자들, 노인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옥황상제에게 묻고, 옥황상제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 준다.
- 5 '끝' 부분에서 총각은 옥황상제가 일러 준 대로 노인인과 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받은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로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 6 '가운데 1' 부분의 '제 코가 석 자'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활동 응용 문제

36~37쪽

1 ④

- 1 「복 타러 간 총각」에는 총각이 복을 타러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만난 여러 인물의 고민이 제시되고, 총각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목적에 따라 인물의 여정, 문제 해결 과정,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을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39쪽

1 × 2 × 3 ○ 4 ○ 5 애원했다 6 분출해
7 선명하다 8 한정되어 9 대조 10 인과 11 열거
12 문단

확인 문제

41쪽

1 중심 문장 2 구조 3 목적 4 체계적 5 ○
6 × 7 ○ 8 ⊖ 9 ㉠ 10 ㉡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44~45쪽

1 ④ 2 ① 3 ① 4 ⑤

- 1 이 글에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중심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자연재해를 핵심 개념으로 다루며 기상에 의한 재해,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누어 그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2 이 글은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3 교과서를 읽고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드는 목적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하며,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 줄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은 요약하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나만의 요약 노트'는 과학 과목에 한정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약 및 정리가 필요한 국어, 사회, 수학 등 다양한 과목에 적용하여 내용을 보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46~51쪽

- 01 ① 02 ④ 03 ⑤ 04 별똥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③ 10 ④ 11 비록 총각은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 마음들이 모두 다 복으로 돌아온 거야.
12 ⑤ 13 ③ 14 ② 15 ③ 16 ③ 17 원인
18 ② 19 ④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별똥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 주장을 드러내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02 (라)의 중심 내용은 유성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장에 있다.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가 (라)의 중심 내용이다.

03 윤서가 글을 요약하는 목적은 유성우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라)는 유성우 현상의 개념, (마)는 유성우가 생기는 까닭에 대한 내용이므로, 윤서는 (라), (마)를 중심으로 하여 글을 요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요약하는 방법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찾기
→ 찾은 문단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 정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04 (가)는 사람들이 별똥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내용을, (나)는 사람들이 별똥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별똥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나)는 별똥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중심 내용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중심 내용을 '별똥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통합하여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5 (가)는 우리나라에서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내용, 이와 비슷하게 일본과 칠레, 필리핀에서도 각각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특정 행동을 하면 별똥별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기>는 이러한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로 묶어 별똥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요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요약의 규칙

-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찾는다.
- 덜 중요한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
-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
-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든다.

06 (나)의 중심 내용은 '별똥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별똥별은 하늘에서 이유 없이 떨어지는 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다는 사례, 유럽(ㄱ)과 고대 그리스(ㄴ), 고대 동양(ㄷ)에서도 별똥별은 위험한 시기를 암시하거나 큰 인물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답 풀이 ㄹ. 필리핀에서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리본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가)에 드러나는 내용으로, 별똥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례이다.

ㅁ. 옛날 사람들은 별똥별은 우주 먼지이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나)에서 옛날 사람들은 별똥별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07 이 글은 삼 년이 지나도록 끝머슴만 하던 총각이 자신의 신세를 억울해하며, 직접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로 떠나는 여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08 총각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그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듣고 해결해 주려는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09 준후는 연극에서 처녀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처녀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글을 요약하며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 이 글은 총각의 여정에 따라 각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늘나라), ㉡(큰 강), ㉢(국화꽃밭), ㉣(마을)은 각 장소에서 인물의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을 요약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은 처녀의 생각을 표현한 대사로,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요약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11 이 글의 교훈은 총각은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마음이 결국 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이 글을 착하게 살면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 12 이 글은 자신이 복을 못 탔다고 생각하는 총각이 직접 하늘나라로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난 인물들의 문제 상황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간의 이동과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보기>는 인물들의 고민과 고민의 해결 방법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요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참고 자료

읽기 목적에 따라 「복 타러 간 총각」 요약하기

인물의 여정에 따라 요약하기	총각의 여정에 따라 '마을 → 국화꽃 밭 → 큰 강 → 하늘나라 → 큰 강 → 국화꽃 밭 → 마을'의 순서대로 요약함.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요약하기	처녀, 동자들, 노인이 처한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함.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요약함.

- 13 (가)와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다)와 (라)는 이야기이다. (가)~(라)는 모두 글의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ㄴ)을 고려하여 요약하거나,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선택(ㄷ)하여 요약할 수 있다.

오답 풀이 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다)와 (라)에만 해당한다.
 라. 설명하는 대상과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가)와 (나)에만 해당한다.

참고 자료

글의 종류에 따라 요약하기

종류	방법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함.
주장하는 글	글쓴이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함.
이야기 글	인물, 사건, 배경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함.

- 14 글을 요약할 때는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찾고, 덜 중요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보,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한다. '별뿔별이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라는 문장은 유성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가)의 중심 내용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
- 15 (다)와 (라)를 다양한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하며 읽을 수 있지만 '서론-본론-결론' 구조에 집중하며 읽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와 (라)는 설화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론-본론-결론'은 논설문과 같이 논리적인 글에 적합한 구조이다.

참고 자료

설화의 개념과 종류

개념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기록된 것으로, 서사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
종류	• 신화: 신적인 존재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신성성과 위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전설: 비범한 인간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전해짐. • 민담: 평범한 인간이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로 흥미와 교훈을 전달함.

- 16 이 글은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에 기상 이변 현상의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자연재해는 인간과 인간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자연 현상을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자연재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로 홍수, 가뭄을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지각 변동에 의한 자연재해로 화산활동, 지진, 지진 해일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자연재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17 (가)에서 자연재해의 정의를 설명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18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한 현상'으로 핵심 개념을 요약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이 넓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가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핵심 개념을 요약할 때 삭제해도 무방한 내용이다.

- 19 교과서의 글을 읽는 목적은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긴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내용 구조도, 도표,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기억하기에도 좋다.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54~55쪽

1 (1) 설명문 (2) 목적 (3) 구체적 (4) 요약

2 (1) 독자 (2) 생성하기

3 (1) × (2) ○

4 개요

5 (1) ○ (2) ○ (3) × (4) ○

6 (1) 정보 (2) 관찰

활동 응용 문제

58~69쪽

1 ⑤ 2 ③ 3 ① 4 출처 5 ② 6 개요

7 ① 8 ⑤ 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목적, 독자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글인 수필을 쓸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다.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책,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백과사전 등의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소설은 글쓴이가 상상하여 쓴 허구적인 이야기이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 수집한 자료 중에서 글에 활용할 정보를 선별할 때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난도와 수준의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활용할 자료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올린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자료를 찾았다면,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외해야 한다.

5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별한 정보 중에서 비슷한 내용의 정보는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집한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 글에 담을 만큼 중요인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따져 보고 사용해야 한다.

③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형식을 바꾸거나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글을 실을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등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를 따져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영상 매체와 인쇄 매체 모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영상 매체의 정보는 제외하고 인쇄 매체의 정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으며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개요를 작성한 후에는 조직한 내용이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거나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개요를 점검하며 주제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⑤ 개요를 점검할 때는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고려하여 글의 중심 내용이 순서에 맞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8 글을 쓸 때는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면서도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고쳐 쓰기 과정에서 점검할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할 때는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②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문장이 없는지 점검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③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다.

9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에 담은 자료들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주제를 담은 것은 아니다.

② 자료를 가져올 때는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 글을 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글에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내용을 글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10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후기는 태권도의 기술과 경기 방법을 전달하려는 글의 목적과 맞지 않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개인의 후기나 감상보다 태권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11 독자와 글을 실을 매체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선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처음-가운데-끝'의 구조에 맞게 중심 문장을 배열하고, 내용이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글의 제목이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2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는 주장하는 글에 더 적합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인 정보를 담아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설명하려는 목적의 글로, 보고서나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등이 이에 속한다.

13 완성된 글을 점검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독자의 흥미와 수준, 다양한 형식과 매체의 활용, 자료의 출처 등을 고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글을 고쳐 쓴다.

문해력 키우기

71쪽

- 1 경직 2 정식 3 진화 4 의식적 5 ○ 6 ×
7 ○ 8 × 9 ⊖ 10 ⊕ 11 ⑦ 12 ㉠

확인 문제

73쪽

- 1 × 2 ○ 3 × 4 ① 5 ⊖ 6 ㉠ 7 목적
8 출처 9 흥미 10 매체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74~75쪽

- 1 ③ 2 ④ 3 ⑤ 4 ③

1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자료는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라는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나)는 중학생이 종이책을 읽는 비율이 감소하고, 전자책을 읽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를 드러낼 때 활용할 수 있다.

④ (라)는 학생들이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마)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디지털 시대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책과 전자책을 융통성 있게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드러낼 때 활용할 수 있다.

2 보고서는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관찰·실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정리한 글이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긴 문장을 사용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보고서에는 ‘조사 동기와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소감과 평가’ 항목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조사 소감과 평가를 작성한다.

4 보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② 보고서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④ 보고서를 쓸 때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⑤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76~79쪽

-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수집, 선별 08 ② 09 ④ 10 ③ 11 독도의, 습하다 12 ④ 13 ② 14 ① 15 ⑤

01 ‘우주’는 독도의 날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학교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02 (다)와 (라)에서 ‘우주’는 글을 써서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가치에 대해 알려줬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주의 학교 친구들이다.

03 독도가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인터넷 자료(ㄷ)와 흐린 날에도 독도에서 울릉도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문 기사(ㄹ)는 독도의 지리에 대한 글을 쓸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ㄱ.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적 기록은 독도의 지리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ㄴ. 개인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독도 관련 동영상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04 (나)에서 독도 새우는 달짝지근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반해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획량이 적어 값이 비싸다고 하였다.

05 (나)는 독도 새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독도의 수산 자원의 가치를 다룬 자료인 (가)보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를 고려했을 때 제외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③ (나)는 텔레비전에 방영된 프로그램 중 일부로 출처가 표시되어 있으며, 대중매체에 방영된 자료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독도 주변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독도 새우에 관한 정보로, 독도의 수산 자원과 그 가치를 담고 있어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⑤ (나)는 독도 새우의 맛과 인기, 값이 비싸다는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06 (다)는 독도의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독도의 공시 지가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이고, (라)는 독도의 지하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내용의 자료이다. 따라서 (가)~(마)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의 빈칸에는 (다)와 (라)를 활용하여 '지하자원의 가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07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글의 목적과 주제를 떠올리며 자료를 수집한다. 여러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요도를 점검하여 덜 중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08 이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쓴 글이다. (라)에서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천장굴 등 독도의 다양한 암석과 지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지질 경관의 아름다움 덕분에 독도가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독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울릉도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의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이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라)의 독도의 모습으로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독도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덕분에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는 각종 어류가 풍부하고,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독도 주변 깊은 바다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지하자원도 풍부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9 제시된 자료는 '촛대바위'의 사진이다. 이 자료는 (라)의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독립문바위, 천장굴 등 다양한 암석과 지형, 독도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덕분에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10 <보기>의 문장은 '이러한 이유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독도 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과 어울리는 부분이어야 한다. (가)~(마) 중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문단은 독도의 수산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함을 강조하는 (다)이므로, <보기>는 (다)의 뒤에 들어가야 한다.

11 완성한 글을 고쳐 쓸 때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고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라)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이므로, 독도의 날씨를 설명하는 문장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비가 자주 내려서 비교적 습하다.'라는 문

장을 삭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 글의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목적과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없는지 확인한다.
- 독자의 흥미를 끌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쓴다.
-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도표, 그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 자료를 가져올 때는 출처를 밝히고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12 (라)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중학생들이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 100명 중 45%의 학생이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로 '보관과 휴대가 편리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중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평균 권 수'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전자책을 읽는 평균 권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이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중학생의 비율'에 대한 자료로, 종이책과 전자책의 수량을 알 수는 없다.

③ (다)는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료로, 중학생과 비교한 결과는 알 수 없다.

⑤ (마)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읽기 전략'에 대한 자료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책 읽기와 전자책 독서를 융통성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다)는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료로,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라는 보고서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를 활용할 수 없다.

14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할 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라면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중학생들이 종이책을 읽는 비율은 감소하고 전자책을 읽는 비율이 증가함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내용 생성 방법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자료의 수집	책, 백과사전,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해야 할 자료와 자료 수집 방법은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의 선별	수집한 자료 중에서 글에 활용할 정보를 선별하려면,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 글에 담을 만큼 중요한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15 '조사 소감과 평가' 부분에서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소감을 쓸 수 있다. (마)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읽기 전략'에 대한 자료로, 디지털 시대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책과 전자책을 융통성 있게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라)의 내용을 통해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마)의 내용을 활용해 독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가)와 (나)는 '문화 체육 관광부'의 누리집, (라)는 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마)는 책을 조사한 내용이다.

③ (가)와 (나)를 통해 종이책을 읽는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전자책을 읽는 학생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의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중 45%의 학생이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이유로 '보관과 휴대가 편리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대단원 평가

86~89쪽

- 01 ② 02 ③ 03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04 ④ 05 ④ 06 ⑤ 07 금덩이 세 개, 여의주 두 개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예상 독자인 학교 친구들에게 낯선 용어이기 때문이다. 13 ④

- 01 (다)는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라)는 별뿔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으로, (다)와 (라)를 통해 사람들이 별뿔별을 바라보며 각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별뿔별은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우주 먼지가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낸다고 하였으나,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

④ (나)에서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하였으므로, 별뿔별과 유성우는 서로 관련 있는 자연 현상이다.

⑤ (나)에서 지구에는 일 년에 여러 차례 유성우가 쏟아지고는 하며, 그중 8월과 12월의 유성우는 시간당 100개에 가까운 별뿔별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였다.

- 02 (다)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고, (라)는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다)와 (라)는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03 운서는 유성우를 설명하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우주는 별뿔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다)와 (라)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4 이 글은 마음씨 착한 총각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를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할 때, 다른 인물들을 도와주는 총각의 마음씨에 가장 주목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 05 상머슴은 이 글에서 문제 상황에 처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복 없는 신세를 한탄하는 총각에게 하늘나라에 직접 가서 복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즉 이 글에서 복을 타지 못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은 상머슴이 아니라 주인공인 총각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총각은 "언제까지 끌머슴만 하고 살아가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② (다)에서 동자는 국화꽃이 피어야 하늘로 갈 수 있으나 십 년째 꽃이 피지 않아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③ (나)에서 처녀는 자신과 혼인 말만 오가면 남자들이 큰 병에 걸려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노인은 강에서 이무기로 천 년을 살고도 승천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 06 이 글은 총각이 직접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로 떠나는 여정에서 여러 인물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가) 직접 복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총각 → (나) 처녀의 고민을 들은 총각 → (다) 동자들의 고민을 들은 총각 → (라) 노인의 고민을 들은 총각 → (마) 노인, 동자들, 처녀의 고민을 해결해 준 총각'의 순서를 고려했을 때, 이야기의 흐름 상 여정에서 만난 인물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알아낸 <보기>의 내용은 총각이 인물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시작한 (마)의 앞에 들어가야 한다.

- 07 이 글에서 총각은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로 동자들과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각각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얻었다. 처녀가 혼인할 수 있는 대상은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이므로,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복선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을 통해 독자는 이어질 이야기에 궁금함을 느끼고, 다가올 사건을 당황스럽지 않게 여기게 된다.

08 이 글은 자연재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의 홍수와 가뭄은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이고, (나)의 화산 활동과 지진, 지진 해일은 지각 변동에 의한 자연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의 소재목은 '기상에 의한 재해', (나)의 소재목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가 가장 적절하다.

09 이 글은 자연재해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진 해일'은 해양 지각에서 발생한 지진, 화산 활동으로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멀리까지 빠져나갔다가 높은 파도와 함께 해안으로 밀려오는 현상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㉔은 지진 해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설명한 문장으로, 핵심 개념이 아니므로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10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알리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므로, '독도의 가치'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독도의 상징물'은 삭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개요

정의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
효과	•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음. •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작성 방법	• 중심 제재와 종속 제재 혹은 전체 주제와 종속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함. • 글의 중심 내용을 나열함. • 글의 중심 내용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 구조도를 작성함.

1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독도의 역사 기록 자료는 '독도의 지리와 가치'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독도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독도의 수산 자원을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독도의 지하자원을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12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라는 용어는 예상 독자인 학교 친구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육지 근처 물가에 사는 생물'과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고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예상 독자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3 <보기>의 보고서에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에 대한 조사 동기와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내용은 제시되어 있

지만,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 '조사 소감과 평가' 항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3. 조사 방법'에서 누리집과 책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4. 조사 내용'에서 '문화 체육 관광부' 누리집과 설문 조사를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 조사 방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과정을 알 수 있으며, '4. 조사 내용'에서 그 조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실험·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보기>의 보고서에서는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90~91쪽

01 낮에는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이다. 또한 별뿔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02 유성우는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유성우는 우주 먼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 가면,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생겨난다.

03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 떨어지는 별뿔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

04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마음들이 모두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05 매체를 이용해 찾은 정보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은 영상 자료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

01 (가)에 평상시에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낮에는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아서, 별뿔별은 주로 햇빛이 없는 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별뿔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평상시에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국화꽃이 피지
않음. → 꽃밭 아래에서 금덩이를 파냄. 06 ③ 07 ④
08 ① 09 ④ 10 ⑤ 11 ①

- 02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고려하여 요약할 문단을 선택해야 한다. 유성우의 현상의 개념은 (나)에서,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는 (다)에서 설명하고 있다. 두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 요약하면 읽기 목적에 맞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유성우 현상의 개념을 적절하게 썼다.	☐
(다)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 03 (라)의 중심 내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칠레, 필리핀에서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별뿔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는 것이다. (라)의 중심 문장을 정리할 때, 사례로 나온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을 '세계 여러 나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의 사례를 '세계 여러 나라'로 묶어서 표현하였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4 이 이야기는 복을 타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한 총각이 직접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던 중 여러 인물을 만나 고민을 듣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과정을 담고 있다. 총각 자신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타지 못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결과로 자신도 복을 받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마음들이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총각에게서 본받을 점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 05 (나)는 독도를 바라본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이다. 이 자료는 독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은 자료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나)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쓰기 윤리와 관련하여 제외해야 할 자료가 (나)임을 썼다.	☐
(나)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썼다.	☐

참고 자료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가져와서 글을 쓸 때는 내용이 정확하지 확인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원래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 01 (가)의 '별뿔별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이다.'와 '이 우주 먼지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공전하던 지구와 가까워지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지구로 떨어진다.'라는 문장에서 별뿔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소재목으로는 '별뿔별의 정체'가 가장 적절하다.

- 02 (라)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마)는 반대로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으로, (라)와 (마)는 별뿔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와 (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뿔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여 뒤에 나올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라)와 (마)를 비롯한 이 글에서 사람들이 별뿔별을 잘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마)에 별뿔별 위험한 시기를 암시하는 징조로 여겼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비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라)에는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라)에 별뿔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사례가 제시되나 (마)에는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마)에서 별뿔별은 이유 없이 떨어지는 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라)에는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3 <보기>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관측하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이 글을 요약하려면 유성우 현상의 개념과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나)와 (다)를 가장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가)는 별뿔별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유성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라)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관한 내용, (마)는 별뿔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으로 유성우를 관측하는 행사 홍보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4 (가)에서 총각은 국화꽃이 피지 않아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동자들의 고민을 듣고 동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동자들의 사연도 물어봐 주기로 약속을 하는 인정 많은 면모를 드러낸다. 즉 총각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각이 지니고 있는 마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인 ②가 적절하다.

- 05 <보기>는 총각이 복을 타러 가는 길에 만난 각 인물들의 고민과 그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글이 요약되어 있다. (가)에서 동자들

은 국화꽃을 십 년 동안 가꾸었지만 꽃이 피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나)에서 옥황상제는 이에 대한 답으로 꽃밭 깊숙이 박혀 있는 금덩이를 파내면 된다고 해결 방법을 알려 준다.

평가 기준	확인
동자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썼다.	☐
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썼다.	☐

- 06** 이 글에서 총각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착한 마음씨 덕분에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을 도와준 마음이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통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총각이 받은 금덩이와 여의주는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에 대한 보상이며, 물질만능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② 총각은 자신의 복 없는 신세를 한탄했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다.

④ 총각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자신이 받을 복을 양보하고 헌신한 것은 아니다.

⑤ 총각은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아니며,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인물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었다.

- 07** (라)는 독도의 지질 유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독도에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독도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다.

② (나)는 독도 수산 자원의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③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대체할 용어가 없다. (다)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개념을 정의하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독도에 가는 방법은 (가)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8** 제시된 자료는 독도의 공시 지가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이다. (다)에서는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독도의 공시 지가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활용하면서 독도 땅의 경제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09** '중학생의 매체별 독서 실태'라는 보고서의 주제를 고려하여 제시된 자료 중 중요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제시할 때 도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형식은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자료가 많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주제와 목적, 독자의 수준, 자료의 출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시된 설문 조사에는 각 항목별 수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주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이며,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식으로 제시된 자료이다.

⑤ 제시된 자료 중 (가)와 (나)의 내용이 비슷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들이 중복되므로 하나만 선택해서 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0** (마)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읽기 전략에 대한 자료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종이책 읽기와 디지털 독서를 융통성 있게 병행하여 읽기 목적에 맞게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마)의 내용은 보고서의 조사 소감과 평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자료는 종이책, 전자책과 같은 매체에 따른 독서 실태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글을 읽을 때 핵심을 찾아 요약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은 자료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마)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융통성 있게 병행하여 독서하자는 '양손잡이 문해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라)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 조사 참여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마)에서는 읽기 목적에 맞춰 종이책과 전자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독자의 선호도에 맞춰 종이책과 전자책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11** 태권도의 경기 방법에 대한 글을 쓸 때, 태권도의 경기 장면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관련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단어는 나누어 보고, 매체는 견주어 보고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

소단원 한눈에 보기

100~101쪽

- 1 (1) 형태 (2) 불변어 (3) 수식언 (4) 의미
- 2 (1) 체언 (2) 독립언 (3) 관계언 (4) 가변어
- 3 (1) 명사 (2) 상태 (3) 활용
- 4 (1) 형용사 (2) 관형사 (3) 부사 (4) 동사
- 5 (1) 용언 (2) 독립적 (3) 문법적

활동 응용 문제

106~121쪽

- 1 ② 2 ② 3 ③ 4 (1) 정원, 꽃 (2) 피었다 (3) 빨간
- 5 ② 6 ② 7 저기 8 ⑤ 9 (1) 누나, 나이, 장갑 (2) 나, 저기 (3) 스물, 하나
- 10 ③ 11 ① 12 ④ 13 들어
- 가다 14 ④ 15 ③ 16 ④ 17 활용 18 ④
- 19 마셨다, 많이 20 관형사, 부사 21 ⑤ 22 와, 은, 을
-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② 28 ⑤
- 29 ⑤ 30 ①

- 1 조사도 단어이므로 '하늘'에는 '하늘'과 '에'로 나누어지는 두 개의 단어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파란 / 하늘 / 에 / 비행기 / 가 / 높이 / 날아간다'로 나눌 수 있다.
- 2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제시된 문장에는 동사 '노는(놀다)'과 형용사 '신난다'가 사용되었다.
- 3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즐거운(즐겁다)'은 명사 '하루'를 꾸며 주는 단어가 아니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새'는 명사 '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이'는 명사 '사진'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정말'은 동사 '재미있었다(재미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우연히'는 동사 '만났다(만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4 (1)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로, '정원'과 '꽃'이 명사에 해당한다.
 (2)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로, '피었다(피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3)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로, '빨간(빨강다)'이 형용사에 해당한다.

- 5 '일찍'은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이다.
- 6 '행복'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곰, 자전거, 국어사전, 방울토마토'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7 '저기'는 제시된 문장에서 '가게'를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 8 ⑤의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다섯', ②의 '둘', ③의 '셋', ④의 '하나'는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9 (1)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누나', '나이', '장갑'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품사로, '나', '저기'가 이에 해당한다.
 (3)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로, '스물',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 10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두 체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오답 풀이 ㄱ.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로,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ㄴ. 주로 다른 대상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는 수식언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 11 '기늘다, 바쁘다, 노랗다'는 형용사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특성이 있다.
오답 풀이 ②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③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다.
 ④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수사이다.
 ⑤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것은 대명사이다.
- 12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먹다', ②의 '씻다', ③의 '달리다', ⑤의 '생각하다'는 모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13 '들어갔다'의 기본형은 '들어가다'로,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들어갔다'는 기본형 '들어가다'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이 붙은 것이다.
- 14 '㉠ 좋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 부른다(부르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② ㉠과 ㉡은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③ ㉡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⑤ ㉠과 ㉡은 모두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 15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움직임,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다.

②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다른 단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것은 부사이다.

⑤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으로,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16 제시된 어미를 붙여 쓸 수 있는 단어는 동사이다.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므로 ‘깨끗한다’, ‘깨끗하자’, ‘깨끗하라’와 같이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쓰다’는 ‘쓴다’, ‘쓰자’, ‘쓰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② ‘걷다’는 ‘걷는다’, ‘걷자’, ‘걸어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③ ‘말하다’는 ‘말한다’, ‘말하자’, ‘말하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⑤ ‘돌아가다’는 ‘돌아간다’, ‘돌아가자’, ‘돌아가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7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며, 어간에 ‘-다’를 붙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한다.

18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19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셨다.’에서 ‘마셨다(마시다)’가 동사이고, ‘많이’가 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0 ‘㉠웬’은 명사인 ‘걱정’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알록달록’은 동사인 ‘물들었다(물들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1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한다. ⑤의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너무’는 형용사 ‘많이(많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모든’은 명사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깜짝’은 동사 ‘놀랐다(놀라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어떤’은 명사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2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한다. ‘나와 동생은 밥을 먹었다.’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는 단어는 ‘와’, ‘은’, ‘을’이다.

23 ‘도’는 이미 어떤 것도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민지가 다른 과목을 좋아하고, 국어까지 좋아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사 ‘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⑤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24 사람 이름 ‘다솜’은 명사, ‘아’는 조사로, ‘다솜아’는 감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대답, 부름 등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③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26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부사이며, ‘엄청’은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를 뜻하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바람’은 명사, ‘우리’는 대명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④, ⑤ ‘뽀다’는 동사, ‘아름답다’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27 ‘즐겁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즐거우세요’가 아니라 ‘즐겁게 지내세요’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28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민지가 대명사 ‘여기’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은서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 ‘송알송알’과 ‘조롱조롱’은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로, 부사에 해당한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며, 시와 같은 글에 부사를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30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등과 같은 감정과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감탄사를 사용하면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③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④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다.
 ⑤ 활용을 하는 것은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문해력 키우기

123쪽

- | | | | | | |
|---------|--------|-------|--------|--------|--------|
| 1 ○ | 2 ○ | 3 × | 4 ○ | 5 조합하여 | 6 유의해야 |
| 7 기원하였다 | 8 적합한 | 9 예외적 | 10 의존적 | | |
| 11 추상적 | 12 개별적 | | | | |

확인 문제

125쪽

- | | | | | | |
|-----|-----|-----|-------|------|-------|
| 1 ○ | 2 × | 3 ○ | 4 대명사 | 5 활용 | 6 문법적 |
| 7 ㉠ | 8 ㉡ | 9 ㉢ | 10 ㉣ | | |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126~127쪽

1 ㉠: 관형사, ㉡: 수사 2 ㉢ 3 ㉣ 4 ㉤

- 1 '㉠ 다섯'은 '개'라는 명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관형사이며, '㉡ 다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2 ㉢에서 '배우는 만큼'의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의 '만큼'은 체언 뒤에 붙어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3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에서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4 '너는 공부밖에 모르는구나.'에서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공부밖에'로 붙여서 쓰는 것이 옳바르다.

소단원 평가

128~13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하나, 둘, 첫째, 둘째 08 ㉣ 09 ㉡ 10 빨갈게,
변했어, 뛰어서, 힘들어, 앉자 11 ㉢ 12 ㉢ 13 ㉣
14 ㉣ 15 ㉡ 16 ㉣ 17 도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01 품사 중 조사는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사용되고, 홀로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품사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동생이 새 필통을 열었다.'라는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동생 / 이 / 새 / 필통 / 을 / 열었다'로, <보기>에 사용된 단어는 총 6개이다.
- 03 단어를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인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인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하고, 용언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 04 <보기>의 단어를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꽃'과 '바다'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 '가다'와 '달렸다(달리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 '푸르다'와 '예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에 해당한다.

- 05 '㉢ 꽤'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이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의 '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에 쓰인 '먹는(먹다)'는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먹어서', '먹고', '먹으니'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
③ ㉢의 '이'는 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사용된다.
⑤ ㉤의 '맛있어(맛있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06 '저것', '여기', '이것', '나'는 대명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다른 단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는 것은 용언 중 부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대명사의 종류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나, 저, 우리, 당신, 그분 등
지시 대명사	•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 이것, 저것, 그것 등 •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 여기, 거기, 저기 등

- 07 수사는 기준에 따라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와 '둘'이고,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첫째'와 '둘째'이다.
- 08 '뛰어들어'의 기본형은 '뛰다'가 아닌 '뛰어들다'이다.
- 09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머뭇거리지(머뭇거리다)', '서성대지(서성대다)', '뛰어들어(뛰어들다)'이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얀(하얗다)', '따스한(따스하다)'이다.
- 10 용언은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동사인 '변했어(변했다)', '뛰어서(뛰다)', '앉자(앉다)'와 형용사인 '빨갈게(빨갈다)', '힘들어(힘들다)'가 용언이다.
- 11 동사는 '-는다/-다'와 같은 현재형, '-자'와 같은 청유형, '-어라/-아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쓸 수 있다.
- 12 '곱다'는 형용사로, '곱는다', '곱자', '고와라'와 같이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쓸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다'는 동사로, '잔다', '자자', '자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타다'는 동사로, '탄다', '타자', '타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서다'는 동사로, '선다', '서자', '서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믿다'는 동사로, '믿는다', '믿자', '믿어라'로 활용할 수 있다.
- 13 '㉠ 새'는 뒤에 오는 명사 '신'을 꾸며 주는 관형사, '㉡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14 ④의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헌'은 명사 '가방'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두'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저'는 명사 '나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옛'은 명사 '물건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참고 자료

관형사와 수사, 대명사의 구분

수사와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 관형사는 수식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수사]
-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 [관형사]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대명사]
- 이 나무는 아주 큼니다. → [관형사]

15 '세상'은 '온'이라는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이다.

16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단어에 해당한다.

17 <보기>의 문장이 다송이가 다른 채소를 비롯하여 오이도 싫어한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인 '도'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조사의 종류

격 조사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 예 이/가, 의, 을/를, 에게/에, 이다 등
보조사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 은/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등

18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은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소리인 '어, 예, 음' 등은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③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말인 '하하, 아차, 에이, 영차' 등은 감정 감탄사에 해당한다.
 ④ 상대를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인 '자, 여보, 오나, 그래' 등은 의지 감탄사에 해당한다.
 ⑤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기에 '독립언'이라고 한다.

19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뜻으로, 부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여보세요'는 부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③, ⑤ '아니',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④ '오'는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20 '어떤 학생이 빠짐없이 오면 출발합니다.'라는 문장은 의미상 어색하므로, ㉠에는 관형사 '모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1 '즐겁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즐거우세요'는 '즐겁게 보내세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어르신'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다른 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즐거우시길 바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④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로, 장수, 그리고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구 마을 화관에서 잔치를 연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형으로 표현한 '했습니다'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2 할아버지의 말에서 대명사 '그쪽'과 '그거'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23 ④의 '만큼'은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앞에 오는 명사 '당신'에 붙여서 '당신만큼'으로 써야 한다.

참고 자료

조사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채소가 고기만큼 맛있었다. → [조사]
-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 [의존 명사]

24 '뻔'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에 붙여 쓰므로 '이것'에 붙여 있는 것이 옳바르다.

- 오답 풀이** ②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처음이면 모를 수도 있지.'라고 써야 한다.
 ③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점심에 김밥 한 줄을 먹었어.'라고 써야 한다.
 ④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책을 다 읽는 데 일주일이나 걸렸어.'라고 써야 한다.
 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고 써야 한다.

25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도서부 부원조차 참여해야 해.'는 다른 부 부원은 물론이고 도서부 부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02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비교

소단원 한눈에 보기

134~135쪽

- 1 (1) 대량 (2) 인터넷
- 2 (1) ○ (2) × (3) ○
- 3 (1) 생산자, 수용자 (2) 쌍방향
- 4 (1) 높다 (2) 낮다
- 5 (1) 불특정 (2) 사회적 파장 (3) 관심사 (4) 영향력
- 6 (1) × (2) ○

스스로 확인하기

143쪽

- (1) ○ (2) ○ (3) ×

활동 응용 문제

138~147쪽

- | | | | |
|---------------|---------|-----------|-------------|
| 1 대중 매체 | 2 ④ | 3 ④ | 4 개인 인터넷 방송 |
| 5 ① | 6 상호 작용 | 7 ③ | 8 ④ |
| 9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 | 10 ① | 11 크다, 작다 | 12 ④ |
| | | | 13 ④ |

- 1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등이 있다. 인쇄 매체(책, 신문), 음성 매체(라디오), 영상 매체(텔레비전), 새로운 형태의 매체(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모두 대중 매체에 속한다.
- 2 전단은 인쇄 매체, 스마트폰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인 뉴미디어 매체에 해당한다.
- 3 (가)는 텔레비전, (나)는 라디오, (다)는 신문으로 대중 매체에 해당한다. 반면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대중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라)에는 개인이 단풍 축제에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내 보내고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 제작자가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한다.
- 5 (가)는 대중 매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대중 매체는 대중의 관심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방송을 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가)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지만, (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도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④ (가)는 대체로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기가 어렵지만, (나)는 수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 6 대중 매체는 대체로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기가 어렵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수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 7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의 경우, 방송 전 심의 규정을 거쳐 정보를 내보낸다.

오답 풀이 ① 대중 매체는 방송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중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방송되었을 경우,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정정하기 어려운 편이다. ②, ④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큰 편이다.

⑤ 대중 매체의 경우 누구나 방송을 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방송할 수 있고, 심의 규정 제약이 덜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큰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 8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도 방송을 제작(ㄴ)할 수 있고, 시청자 수나 영상의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ㄹ)된다.

오답 풀이 ㄱ. 대중 매체는 잘못된 내용의 방송 결과물을 전달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편이다.

ㄷ. 대중 매체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 9 개인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방송을 검색하여 시청하거나 관심 있는 채널을 저장해 두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 10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여러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11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므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송을 검색해 시청하므로 대중 매체보다 영향력이 작다.

- 12 제시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자는 블로그에서 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점검하지 않고 방송에 그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매체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3 매체를 이용할 때는 매체에서 얻은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점검하고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매체에서는 상업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므로, 전달하는 정보에 상업적인 의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③ 정보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매체를 통해 소통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문해력 키우기

149쪽

- 1 대량 2 수익 3 정정 4 매체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151쪽

- 1 ○ 2 × 3 × 4 ○ 5 불특정 다수 6 대중 매체
7 작은, 큰 8 무분별 9 배려 10 점검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152~153쪽

- 1 ③ 2 ② 3 ②

1 다루기 쉬운 식재료를 알려 주는 책(ㄱ)과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 주는 개인 인터넷 방송(ㄴ)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적절한 매체이다.

오답 풀이 ㄴ, ㄷ.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는 내용이나 유명 맛집의 성공 비결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와 거리가 멀다.

2 매체에서 얻은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믿을 만한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매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믿을 만한 사실인지 확인하고, 정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낸 표어로는 '확인하자, 사실! 잊지 말자, 출처'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정보의 관점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매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태도가 아니며, 반복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④ '~한 말은 ~한 말'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어려운 말은 좋은 말이고, 쉬운 말은 나쁜 말이라는 것은 매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서로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태도이나,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단원 평가

154~157쪽

01 ⑤ 02 ⑤ 03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04 ④ 05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06 ①

07 ④ 08 ① 09 ⑤ 10 ⑤ 11 ③ 1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중 매체보다 영향력이 작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대중 매체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13 ① 14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악의적인 평가를 한 댓글을 쓰고 있다. 매체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5 ② 16 ② 17 ①

01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므로, 대중 매체와 거리가 멀다.

02 방송의 제작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공유하면 시청자가 채널을 찾아가서 시청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설명이다. 텔레비전 방송은 대중의 취향과 관심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에 방영한다.

03 이 글의 전문가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가 등장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형태에 맞게 썼다.	☐

04 특정 지역의 도로 교통 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5 대중 매체는 연출, 촬영, 편집, 음향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썼다.	☐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6 대중 매체는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정보를 전달(ㄱ)하며, 대체로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ㄴ)하여 실시간 상호 작용이 어렵다.

오답 풀이 ㄷ.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 상호 작용이 자유롭다.

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접속한 특정 소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한다.

07 대중의 흥미를 고려한 콘텐츠나 뉴스를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것은 대중 매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원하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한다.

08 (가)는 대중 매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대중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연출가, 촬영 감독, 방송인, 편집·음향 담당자 등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며, (나)는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③ (가)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고, (나)는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방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④ (가)는 주로 대중이 알 필요가 있는 뉴스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고, (나)는 개인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에 공유한다.

⑤ (가)는 방송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는 방송 제작에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09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도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송을 제작하는 대중 매체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

10 대중 매체의 시청자는 방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작성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에 대한 설명이다.

11 텔레비전 방송은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므로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요구된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중 매체에 비해 큰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12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중 매체보다 영향력이 작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대중 매체에 비해 영향력이 작다는 내용을 썼다.	☐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13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한 것은 매체에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 매체를 통해 여행지를 정했던 경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받았던 경험 등이 매체를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경험으로 적절하다.

14 제시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장면에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문제가 되고 있다. 매체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노래신'의 문제점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	☐
매체를 이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로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15 중학생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여러 정보들 중에서 쉬운 요리법을 알려 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6 매체의 이용자 수는 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적다. 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에서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이기는 편 내 편, 지는 편도 내 편.'이라는 표어는 매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기 위한 태도와 관련이 없다. 매체를 이용하면서 정보의 생산자 또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편을 가르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164~167쪽

01 ⑤	02 바다 / 가 / 매우 / 푸르다	03 ④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 마시다, 웃다, 읽다 ㉡: 굶다, 기쁘다, 젊다
09 ①	10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②
17 ①	18 대중 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기 어렵다.	19 ③	
20 ⑤	21 ⑤	22 ②	

01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로, 서로 다른 품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말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 품사가 있다.

②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된다.

③ 우리말의 단어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우리말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02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바다가 매우 푸르다'를 단어로 나누면, '바다 / 가 / 매우 / 푸르다'이다.

03 '희망'과 '손수건'은 명사, '너무'는 부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반면 '날다'는 동사, '부끄럽다'는 형용사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04 체언은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③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④ 감탄사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⑤ 조사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05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를 뜻하는 부사로, '해(하다)'를 꾸며 주고 있다.

06 ㉠의 '나'는 화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로, 대명사에 해당한다.

07 ㉠과 ㉡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과 ㉣은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08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로, '마시다', '웃다', '읽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로, '곱다', '기쁘다', '쫄다'가 형용사에 해당한다.

09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며, 용언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주어와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10 ㉠의 '자동차'는 명사, '가'는 조사, '달린다'는 동사이며, ㉡의 '온갖'은 관형사, '자동차'는 명사, '가'는 조사, '썰썰'은 부사, '달린다'는 동사이다. ㉢의 '썰썰'은 문장 전체가 아닌 뒤에 오는 '달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②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인 '자동차'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온갖'과 '썰썰'이라는 수식언이 쓰여,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④ '(온갖) 자동차가 (썰썰) 달린다.'라는 문장이므로, '달린다'는 모두 자동차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은 명사, 조사, 동사가 쓰였고, ㉡은 관형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가 쓰였다.

11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그중에서 '설마'와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2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의 뜻을 지닌 부사이며, '여보세요', '앗', '아니', '오'는 모두 감탄사에 해당한다.

13 '만'은 조사로, 조사는 다른 단어와 달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에 결합하여 쓰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조사 중 '이다'는 예외적으로 '이고', '이므로'와 같이 형태가 변한다.

14 '알맞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현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쓸 수 없다. 따라서 '알맞는'이 아닌 '알맞은'으로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예쁘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예뻐지도록 노력하자.'와 같이 표현하거나 동사인 '예뻐지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즐겁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즐거우세요'는 '즐겁게 보내세요'로 표현해야 한다.

③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조용하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조용히 하자'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④ '있다'는 동사로, 현재형 어미 '-는'을 결합하여 '있는'으로 표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대상이 그 움직임을 하거나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용사는 대상 그 자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이 없으며, 대상이 그러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15 단위는 띄어서 써야 하므로 '주스 한 병'과 같이 띄어서 쓰는 것이 알맞다.

16 인쇄 매체에는 책, 신문, 잡지, 포스터, 전단 등이, 음성 매체에는 라디오, 음반 등이, 영상 매체에는 텔레비전, 영화 등이,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있다.

17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한다. 따라서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8 대중 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썼다.	☐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썼다.	☐

19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 수나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 오답 풀이** ㄱ, ㄴ, ㄹ은 모두 대중 매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0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 매체가 더 크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 영향력 또한 대중 매체에 비해 작은 편이다.

21 매체에서 얻은 정보가 다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체를 이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이 없다. 매체에서 얻은 정보가 사실이 맞는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체를 이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22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얻은 정보는 출처가 정확한지,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검 과정 없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01 ㉠ 형태 ㉡ 기능 ㉢ 의미

02 '학생'은 명사, '이것'은 대명사, '하나'는 수사이고,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03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04 ㉠의 '그'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고, ㉡의 '그'는 명사인 '나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5 어르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고친 이유: '즐겁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06 대중 매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하여 전문성이 높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도 방송 제작을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

07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 큰 편이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영향력과 책임이 작은 편이다.

08 매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태도, 정확한 정보 인지 점검하는 태도,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1 우리말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단어에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02 '학생'은 명사, '이것'은 대명사, '하나'는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학생', '이것', '하나'를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쓰고, 모두 체언이라는 내용을 썼다.	☐
체언이 불변어라는 것과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03 <보기>에 나타난 '읽다'와 '기쁘다'의 예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현재형 '-는다/-ㄴ다', 청유형 '-자', 명령형 '-어라/-아라'와 같은 어미를 붙여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동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의 '그'는 '에게'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 대명사이고, ㉡의 '그'는 뒤에 오는 명사 '나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이 대명사라고 쓰고,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다는 내용을 썼다.	☐
㉡이 관형사라고 쓰고, 명사를 꾸며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5 '즐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하므로, '즐거우세요'와 같은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즐겁게 보내세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제시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썼다.	☐
'즐겁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

06 <보기>에서 대중 매체를 제작하는 편집자는 방송의 내용에 맞게 전문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중 매체는 비교적 전문성이 높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대중 매체는 전문성이 높다는 내용을 썼다.	☐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는 내용을 썼다.	☐

07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진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중 매체에 비해 큰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썼다.	☐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책임이 작다는 내용을 썼다.	☐

08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때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매체에서 얻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매체를 이용하는 다른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출처 확인, 정보의 사실 확인, 배려하는 언어 표현과 같은 내용을 썼다.	☐
매체를 이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 01 ⑤ 02 하얏다 03 ④ 04 ④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⑤ 10 ②

01 '되다'는 '다른 상태나 성질로 바뀌거나 변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02 '하얀'의 기본형은 '하얏다'로, 어간 '하얏-'에 관형사형 어미 '-니'가 붙어 '하얏-'의 'ㅎ'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참고 자료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중략>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얏다: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야오

03 '먹다'의 '먹-'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어간이다. 따라서 '먹어서'의 어간은 '먹-', 어미는 '-어서'이다.

04 '인테'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나, 예외적으로 '이다'만 여러 형태로 변하는 가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을', '갯'은 명사이다.

② '익는(익다)'은 동사이다.

⑤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부사이다.

참고 자료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이다. '이다'는 '이고', '이니', '이면', '이지' 따위로 활용하며, 모음 아래에서는 어간 '이'가 생략되기도 한다.

05 [A]에서만 쓰인 '아'와 '오'는 모두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하며, 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에는 '여보세요', '야' 등이 있다.

06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가리킨 바로 그 사람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자신'은, '저' 뒤에 쓰여 '저 자신'과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 대중 매체는 방송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기 어렵다.

08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는 대체로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실시간 상호 작용이 어려운 편이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이다.

② 텔레비전은 정해진 방송 시간에 방영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한다.

④ 텔레비전은 전문성을 갖춘 방송 생산자가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정보를 전달하므로, 일반인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제작에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고,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09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대중 매체의 방송은 방송 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의 주제 선정 등에 있어서도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10 <보기>에서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나온 내용을 정보의 확인 없이 수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비롯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정보가 믿을 만한 사실인지, 정보의 출처가 있는지, 정보의 생산자가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체를 이용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3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01 갈등하고 화해하고

소단원 한눈에 보기

176~177쪽

- 1 (1) ○ (2) × (3) ○ (4) ×
- 2 (1) 갈등 (2) 회상 (3) 역순행적 (4) 감자
- 3 (1) 소작농, 마름 (2) 적극적, 소극적
- 4 (1) ○ (2) × (3) ○
- 5 (1) 점순 (2) 닭싸움 (3) 동백꽃

제재 「동백꽃」

스스로 확인하기

180~191쪽

- (1) ○ (2) ○ (3) 홍당무 (4) ○ (5) 억울 (6) × (7) ○ (8) 호드
기 (9) × (10) 무안한 (11) × (12) ○ (13) 순박함

내용 확인 문제

180~191쪽

- 1 ④ 2 ② 3 ④ 4 ④ 5 '나'를 자극하여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6 ① 7 ② 8 점순네 닭을 이기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9 ② 10 ⑤ 11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12 ③ 13 ④ 14 ⑤ 15 노란 동백꽃

- 1 이 글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마름인 점순네와의 관계 때문에 늘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점순이다.
- 2 ㉠에서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이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한편 ㉡에서 점순의 얼굴이 붉어진 것은 자신의 호의를 '나'에게 거절당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④ 기쁨이나 뿌듯함은 ㉠과 ㉡에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무안함'은 ㉡에서 '나'에게 거절을 당한 점순의 심리에만 해당한다.
 ⑤ '부끄러움'은 ㉡에서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점순이 얼굴을 붉힌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 3 점순은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감자를 주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하고,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호의를 거절한다. 따라서 ㉢는 '나'가 점순의 애정을 확실히 알게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감자'의 역할

- '나'에 대한 점순의 호감을 나타내는 소재
-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

- 4 이 글은 오늘 점순이 닭싸움을 붙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나흘 전에 일어난 감자 사건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사흘 전에 점순이 '나'의 닭을 괴롭히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처럼 이 글은 현재 일어난 사건에서 나흘 전의 사건,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전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한 뒤 벌어지는 '닭싸움'을 중심으로, '나'와 점순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② '이놈의 계집애' 등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약이 오른 '나'의 심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③ '나'의 닭들을 괴롭히고 욕을 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점순의 모습에서 집요하고 당돌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감자'로 시작된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은 '닭싸움'으로 인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소설 속 비속어 사용의 효과

-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킴.
- 인물의 정서를 압축하여 표현함.
-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줌.
-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소설 속에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게 함.

- 5 점순은 일부러 '나'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다. 이는 '나'를 자극해서 '나'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6 '나'는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순네 수탉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꾀를 냈다.
- 7 점순네 수탉이 '나'의 수탉을 연거푸 쪼는 것을 본 점순은 ㉠에서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탉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를 약 올리며,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8 이 글의 '나'는 자신의 닭이 점순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이와 같은 '나'의 순박하고 우둔한 행동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장면이다.

참고 자료

「동백꽃」의 해학성

- 마름의 딸인 점순이 소작농의 아들인 '나'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음.
-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순박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자아냄.
- 토속어, 비속어, 사투리, 과장된 어조 등을 통해 해학성을 더함.

- 9 점순이 닭싸움을 걸기 전에 '나'는 점순을 걱정스럽게 일 잘하고 얼굴이 예쁜 계집애라고 생각하며 점순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점순네 닭에게 당하고 있을 자신의 닭이 걱정되어 싱동경동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산을 내려왔다.

③ 점순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닭싸움을 붙여 두고 호드기를 불고 있었다.

④ '나'는 자신의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였다.

⑤ 점순은 '나' 때문에 자신의 닭이 죽자 매섭게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라고 화내면서 따지다가 '나'의 복장을 때린다.

- 10 '나'는 점순에게 호감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점순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못한 것을 민망해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뒤,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다.

② '나'는 점순이 닭싸움을 붙이고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에 약이 오르고 눈물이 쏟아지며 원망을 느끼고 있다.

③ '나'는 닭을 염려하면서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하기에 자리를 비우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의 닭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점순이와 점순네 닭에 치가 떨려 하며 분노를 느끼고 있다.

- 11 이 글처럼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현재에서 과거로, 혹은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 12 이 글은 사춘기 소년인 '나'와 소녀인 점순이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 주제로 드러난다.

- 13 점순의 어머니는 마지막 부분에서 점순이를 찾으며 화를 내는데, 이는 닭이 죽은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순이 바느질을 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결말에서 '나'와 점순이 함께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② '나'는 점순네 닭이 죽은 것을 알고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고 하였다.

③ 점순은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라고 하였다.

⑤ 점순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래!"라고 대답한다.

- 14 점순이 닭을 죽인 '나'의 행동을 이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선 '나'에 대한 호감이 여전하고, 이 일을 구실로 '나'와 화해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15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란 동백꽃'은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고 순박한 사랑이 시작됨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참고 자료

노란 동백꽃

우리가 생각하는 동백꽃은 붉은 꽃이다. 하지만 소설에 나오는 꽃은 강원도에서 '동백꽃'이라 불리는 '생강나무꽃'이다. 옛날에는 머리를 단장하는 데 동백에서 짠 기름을 썼는데, 이는 서민들이 쉽게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비슷한 효과가 있는 생강나무 열매 기름으로 머리를 단장했다. 이 때문에 동백 대신 쓰이는 나무라는 뜻으로 '개동백' 또는 '산동백'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활동 응용 문제

192~195쪽

1 ⑤ 2 마름, 소작농 3 ③ 4 ② 5 ③

- 1 '나'는 점순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면을 지니고 있다. 자존심이 세고 당돌한 것은 '나'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얼굴이 빨개지며 눈에 눈물까지 어리는 점순이의 성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하며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나'의 무뚝뚝하고 눈치 없는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는 사회적 계층의 차이로 점순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에서 둔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자신의 닭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대뜸 달려들어서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 었은 모습에서 '나'의 다혈질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④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자신의 닭이 잠시 점순네 닭을 공격하자 이게 고추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2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소작농이어서, 점순네에 잘못 보일 경우에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의를 준 것이다.

- 3 이 작품은 점순이 '나'에게 호의로 건넨 감자를 거절당하고 난 후, 그 양갓집으로 '나'의 닭을 괴롭히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난 주된 갈등은 '나'와 점순의 외적 갈등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 속 갈등을 이해하는 방법

-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파악한다.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과 가치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한다.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이해한다.

- 4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어수룩하고 둔해서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게 표현한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은 무안했을 것이므로, 이런 마음에 공감하는 감상을 할 수 있다.

③, ④ '나'는 점순의 닭을 때려죽였고, 점순은 자꾸 닭싸움을 시키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감상을 할 수 있다.

⑤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점순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쓰럽게 느끼는 감상을 할 수 있다.

- 5 “너 일하기 좋니?”라는 점순의 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인 “일하기 힘들지 않니?” 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문해력 키우기

197쪽

- 1 ○ 2 ○ 3 × 4 × 5 원만해서 6 겨냥
7 조정하기 8 통탄스러운 9 무안 10 호의 11 필연
12 생색

확인 문제

199쪽

- 1 갈등 2 닭싸움 3 외적 4 해결 5 ③, ① 6 ②, ④
7 ①, ⑤ 8 해학성 9 주인공 10 역순행적

발전 활동 「홍길동전」

스스로 확인하기

200~203쪽

- (1) × (2) ○ (3) ○ (4) 호칭 (5) 신분

내용 확인 문제

200~203쪽

- 1 ④ 2 ② 3 ④ 4 ① 5 소인, 소자

- 1 길동은 얼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과거 시험 역시 볼 수 없었다. 즉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벼슬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길동은 양반인 아버지 홍 판서와 천민 신분의 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이다. 따라서 양반인 홍 판서와 적자인 형에게 호부호형할 수 없었다.

② 길동은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라고 하였다.

③ 천민 신분의 첩에게서 태어난 얼자인 길동과 양반인 홍 판서는 신분이 다르다.

⑤ 길동은 신분 때문에 호부호형할 수 없고, 종들로부터 천대받으며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등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홍길동은 실존 인물일까?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이 발표되었다. 물론 소설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허구적 인물이지만, 실제로 유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홍길동의 행적은 소설 「홍길동전」 속의 활약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실제로 연산군 시절에 길동이라는 이름의 도둑이 있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에는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洪家王)’라는 민중 영웅이 있어 지금까지 숭배되고 사당까지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곧 홍길동이고, 오키나와가 울도국이라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좀 더 나와야겠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무척 흥미 있는 내용이다.

- 2 ㉠에서 홍 판서는 신분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길동에게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니라며 꾸짖고 있다. 이를 통해 홍 판서는 길동이 사회 제도에 순응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길동은 옛날에 길산이 열세 살에 집을 떠나 입신양명한 것처럼 자신도 그를 본받으려 한다고 하였다. 즉 당시 사회에 열세 살이 넘으면 집을 떠나야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길동은 신분으로 인해 천대받는 설움 때문에 집을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중시하고, 무관보다 문관이 대접을 받으며, 입신양명 사상이 있었던 것을 통해 당사가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③ 천민인 첩의 자식인 길동은 신분의 차별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즉 신분의 구분으로 인해 길동은 호부호형할 수 없었고,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다.

⑤ 길동의 말인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등을 통해 당시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길동’이 ‘장길산’을 언급한 이유

장길산은 조선 숙종(1661~1720) 때 해서(海西) 지방의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적이다. 허균은 광해군(1575~1641) 때 「홍길동전」을 썼으므로 장길산은 허균보다 후대의 인물이다. 이것은 이 소설이 후대에 전해지는 동안 여러 번 고쳐졌음을 알려 준다. 후대에 장길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당시 신분 질서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소설에서 홍길동은 장길산을 통해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 길동의 말에 따르면 곡산택은 홍 판서의 사랑을 잃을까 염려하여 길동과 길동의 어머니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다. 즉 길동이 곡산택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 5 길동은 양반인 아버지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소인’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천민인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소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04~205쪽

1 ④ 2 ④ 3 ④

- 1 길동은 호부호형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고,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 갈등하고 있다. 이는 신분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길동이 천한 신분인 얼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다.

- 오답 풀이** ① 길동은 과거 시험을 치를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천한 신분인 얼자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② 아버지가 호부호형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길동이 천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③ 길동의 어머니는 길동과 같은 신분으로, 길동의 처지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⑤ 길동은 입신양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입신양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길동’이 처한 사회의 모습

- 유교적 가치관(공맹을 본받고자 하며, 입신양명 사상이 있음.)이 지배하는 사회임.
- 신분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으며, 이에 따라 호칭의 구별이 있었음.
- 본부인 외에 첩을 둘 수 있는 축첩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임.
- 무관보다 문관이 더 대접을 받는 사회임.

- 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유교 중심 사회로, 축첩 제도와 신분 차별 제도가 있었다. 길동은 이러한 사회에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고 싶기에 갈등하다가 집을 떠나게 된다.
- 3 길동은 장길산처럼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차별에 저항해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집을 떠났다. 따라서 길동이 자연에 묻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206~211쪽

- 01 ④ 02 ④ 03 감자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점순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다.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뭘,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15 (나)-(다)-(가)-(라)-(마) 16 ④ 17 ③
 18 ⑤ 19 ③ 20 ⑤

- 01 이 글은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사건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에 따른 효과

- 1인칭 주인공 시점: 사건의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가 친근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음.
-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가 알 수 없음. 따라서 독자에게 긴장감이나 놀라움을 주기도 함.
-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같이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가 알 수 없음. 따라서 사건을 가장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게 됨.
- 전지적 작가 시점: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작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함.

- 02 점순은 ‘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감자를 주는 등, ‘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⑤ ‘나’는 자신에게 감자를 주는 점순의 행동이 호의를 표현하는 것임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박하고 어수룩하다.
 ② 점순은 ‘나’에게 호의를 표현하고 ‘나’의 거절에 눈물까지 어리고 있으므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마)에서 점순네 집은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 집에서 땅을 부치는 소작농임을 알 수 있다.

- 03 점순이 ‘나’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또한 마름의 딸인 점순이 소작농

의 아들인 '나'에게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며 감자를 내미는 장면을 통해, 감자가 '나'와 점순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설 속 갈등의 역할

-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함.
-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함.
- 소설의 구성 단계를 구분해 줌.
-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04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나'는 ㉔과 같이 말하며 감자를 거절하고, 이를 계기로 점순과 '나'는 갈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㉔은 점순을 챙기는 '나'의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다.

05 (다)에서 '나'는 화가 나도 점순의 집에 뛰어들어 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며,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만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06 소극적이고 둔한 것은 점순이 아니라,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성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호의를 거절당한 것이 분해서 '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 점순의 자존심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게 양갈음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통해 점순에게 집요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가)를 통해 평소 점순의 성격이 당돌하며 천연덕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점순은 '나'의 닭을 괴롭히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욕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친 것은 점순이 아닌 '나'이다.

08 점순이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해 양갈음을 하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한 닭싸움은 '나'와 점순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09 '나'는 (가)와 (마)에서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그 이유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순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계속 당하지 않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확인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썼다.	☐
<조건>에 맞게 썼다.	☐

10 (가)에서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뒤 점순네 수탉 앞에 내려놓고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고추장을 먹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 (나)에서는 '나'의 닭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자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나'의 닭이 다시 점순네 수탉에게 공격당하자 실망하며 고추장을 좀 더 먹여야 했다는 후회를 느끼고 있다.

11 ㉔의 ‘쟁그럽다’는 ‘하는 행동이 괴상하여 알밋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㉔은 ‘낮간지러워’의 뜻풀이에 해당한다.

12 (나)를 통해 '나'가 닭싸움 이전에는 점순을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눈깔이 여우 새끼 같다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점순에 대해 여우 새끼처럼 얼굴 예쁜 계집애라고 말하며 호감을 드러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양갈음을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닭싸움을 통해 '나'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② (가)에서 닭싸움을 붙인 채 천연스레 호드기를 부는 점순의 모습에 화가 난 '나'는 눈물까지 보였다.

④ (나)에서 '나'는 점순네 닭을 죽인 자신 때문에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게 될까 봐 걱정하였고, 결국 (다)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⑤ (다)에서 두려움에 눈물까지 흘리던 '나'는 자신의 행동을 이르지 않겠다는 점순의 말에 안도하게 된다.

13 (다)는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나'와 점순이 화해하면서 둘의 갈등이 해소된다. 외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절정 부분으로,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게 된 장면에 해당한다.

14 분노에 휩싸여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 '나'는 점순이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라고 하는 말을 듣자, 현실을 깨닫고 앞일을 걱정하게 된다.

15 이 글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 (라), (마)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고, (나), (다)는 각각 나흘 전, 사흘 전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다. 따라서 (가)~(마)의 사건이 발생한 순서는 (나)~(다)~(가)~(라)~(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동백꽃」의 역순행적 구성

- 발단(현재-오늘): 점순이 이유 없이 닭싸움을 시킴.
- 전개 1(과거-나흘 전): 점순이 건넌 감자를 '나'가 거절함.
- 전개 2(과거-사흘 전): 점순이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고 욕을 함.
- 위기(과거-어제):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던 '나'의 계획이 실패함.
- 절정(현재-오늘): 점순이 '나'의 닭을 또다시 괴롭히자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죽임.
- 결말(현재-오늘): 점순은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감추어 주고 '나'와 함께 동백꽃 속으로 넘어지며 화해함.

16 ㉔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나'가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이고, ㉔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한 점순이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이다.

17 '나'와 점순이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닭싸움이다. 닭싸움을 본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점순이 이를 눈감아 주기로 하면서 화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닭싸움을 통한 화해

로 갈등을 해소한 두 사람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 '노란 동백꽃'은 향토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참고 자료

'김유정' 작품의 특징

- **향토성**: 김유정 소설의 배경을 대체로 산골이나 농촌임. 「만무방」, 「동백꽃」, 「봄봄」 등이 산골이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김유정의 고향이 강원도 산골인 것과 관련이 깊음.
- **해학성**: 김유정의 소설에는 순박하고 우직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냄. 이러한 해학성은 풍자성을 동반하기도 함.

18 (라)에서 길동의 어머니는 “재상 집안에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라며 흥 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길동뿐이므로, 길동의 어머니가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길동은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였다고 하였다.

② 길동은 신분을 차별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느끼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집을 떠나려 하고 있다.

③ (다)에서 흥 판서는 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을 듣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흥 판서는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라고 하며 사회 제도에 순응하고 있다.

19 (나)에서 길동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가 무관보다 문관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상 집안에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라는 말과, 흥 판서의 사랑을 잃을까 염려하여 길동의 모자를 미워하는 곡산댁의 존재를 통해,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길동이 종들로부터 천대받았다는 것을 통해, 당시가 양반과 종의 구분이 있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를 통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길동은 양반인 흥 판서 앞에서는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고, (라)에서 같은 천민 출신인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을 ‘소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0 이 작품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길동이 신분 상승하여 호부호형하는 것보다 신분 차별이 있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 의식에 더 가깝다.

02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단원 한눈에 보기

214~215쪽

1 (1) 정신적 (2) 공격적, 상처 (3) 삶 (4) 존중

2 (1) × (2) × (3) ○ (4) ○

3 (1) 긍정적 (2) 제안 (3) 마음 (4) 나

4 (1) 존중 (2) 개선

5 (1) ○ (2) × (3) ×

활동 응용 문제

218~227쪽

1 ④ 2 ② 3 ③ 4 ③ 5 ④ 6 ④ 7 ③

1 민선은 찬우가 예전에 했던 잘못을 지적하며 찬우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민선이 윤호, 찬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둘을 중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윤호는 배가 아파 시험을 망친 찬우에게 “배가 안 아팠다고 달라졌을까? 아닐 것 같은데.”라며 비꼬았다.

② 윤호는 “저번에 내가 시험 망쳤다고 했을 때, 나보고 바보냐고 놀린 건 기억 안 나?”라며 찬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언급하고 있다.

③, ⑤ 찬우는 윤호와 민선의 말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짜증 나니까 말 걸지 마!”라며 불쾌감을 나타냈고, “내가 너희들보다 성적 좋거든?”이라며 친구를 비하하는 말로 대화를 끝내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쓴 적이 있는지, 상대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린 적이 있는지,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며, 헐박이나 위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는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 자료

대화의 장에 요소

대화를 하면서 가지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말들, 예를 들어 ‘작다, 크다, 나쁘다, 추하다, 못났다, 더럽다, 둔하다, 건방지다, 수다스럽다, 똥똥하다’와 같은 서술어나 ‘못난이, 곰보, 머저리, 째보, 가난뱅이, 울보, 병신’ 등과 같은 어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대화의 장에 요소가 된다.

- 3 공익 광고 영상에서는 친구 사이의 언어폭력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책에서는 언어폭력을 들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언어폭력이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책에서는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아니다.

② 제시된 공익 광고 영상에서는 재미 삼아 던진 말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책에서는 언어폭력을 경험하면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을 뿐, 언어 발달을 위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제시된 책에서는 언어폭력을 들었을 때의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광고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4 언어폭력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언어폭력의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부정적 말하기의 종류

허위 화법	거짓말, 아무렇게나 말하는 소리
경솔 화법	조심성 없고 가벼운 소리
비판 화법	조롱, 놀림, 너스레, 비난, 타박, 헐뜯, 쏘대고, 비꼬, 트집, 독설, 질책, 야단, 핀잔
협박 화법	음박지름, 으름장, 협박

부정적 말하기는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말하기는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며 성실하고 진솔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5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상대가 당황하지 않게 돌려 말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면,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6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는 "옆으로 조금 가 줄 수 있어?"와 같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며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7 '결정 장애'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래 고민한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다.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장애'로 표현한 것으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문해력 키우기

229쪽

- 1 파괴하다 2 사납다 3 철저하다 4 동조하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231쪽

- 1 원만하게 2 부드러운 3 제안하는 4 나
5 제안 6 마음 7 긍정적 8 ㉠ 9 ㉢ 10 ㉣

발전 활동 「하트가 빛나는 순간」

내용 확인 문제

232-233쪽

- 1 ① 2 ④

- 1 빛나라는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에 방송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친구들이 댓글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 지적하였다. 즉 빛나라가 친구들과 갈등한 이유는 친구들을 살피지 않고 방송 진행만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빛나라가 지혜에게 개인 방송 구독자 수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며 상황을 가정하여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구독자 수가 떨어진 탓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얘기를 들은 지혜의 기분이 더욱 상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빛나라가 친구들과 갈등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③, ④, 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2 서우는 외국인에게 떡볶이가 맵지 않냐고 묻는 누리꾼의 차별적인 댓글을 보고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답한다. 이에 빛나라가 자신도 서우가 한국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해서 당황했다고 말하자 서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즉 서우는 누리꾼이 자신을 차별하는 말에 대해 빛나라가 동조하자 ①과 같이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다.

활동 응용 문제

234-235쪽

- 1 ④ 2 ④

- 1 빛나라는 친구들에게 "야, 맛있게 좀 먹어."와 같이 명령하듯 말하고 있을 뿐,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빛나라는 “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떡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등과 같이 친구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짜증을 내며 공격적으로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다.

② 빛나라는 친구들이 누리꾼들의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⑤ 빛나라는 친구에게 맛있게 먹는다고 하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2 누리꾼의 댓글 중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소단원 평가

236~239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③			

01 (나)는 온라인 대화로,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찬우의 일기로, 찬우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싸웠던 경험을 생각하며 속상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④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찬우와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일상 대화이다.

⑤ (가)는 찬우의 일기, (나)는 찬우와 친구들의 온라인 대화방으로, 둘 다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이 나타나 있다.

02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하려면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대화해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대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03 찬우는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 일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서로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찬우가 시험을 망친 이유를 친구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쫄쫄, 나약하기는. 배가 안 아팠다고 달라졌을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피병이지?”, “짜증 나니까 말 걸지 마!” 등과 같이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대화가 나타나 있다.

② 민선은 배가 아파 시험을 망친 찬우에게 “피병이지?”라며 찬우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

③, ⑤ 윤호는 “저번에 내가 시험 망쳤다고 했을 때, 나보고 바보냐고 놀린 건 기억 안 나?”라며 찬우가 자신을 바보인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찬우의 이러한 말실수는 제시된 대화처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04 (가)에서 윤호는 온라인 대화로 친구들과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으며 싸운 일을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대화 이후

에 윤호는 친구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05 (가)는 언어폭력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언어폭력이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를 주고,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상처를 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가)를 통해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은 상처를 덜 준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는 언니가 나를 별명으로 부르면 기분이 안 좋아. 앞으로는 이름을 불러 주면 좋겠어.”는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매일 축구 연습을 하느라 많이 힘들겠구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는 표현이다.

08 <보기>의 “이 문제 모르겠어. 알려 줘.”는 명령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⑤의 “시간 괜찮으면 이 문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니?”와 같이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다.

09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려면 표정과 몸짓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적절한 표정과 몸짓으로 호응하는 것이 좋다.

10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면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1 ④의 ‘한부모’는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차별적 표현인 ‘편부모 가정’은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살색’은 인종 차별적 표현이므로 ‘살구색’으로 바꿔 써야 한다.

② ‘촌티 풀풀 탈출 성공’은 시골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 성공’ 등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③ ‘병어리장갑’은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손모아장갑’ 등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해 배우는 단계에 놓인 사람에게 붙이는 ‘-린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를 차별하는 말이므로, ‘초보자’, ‘새내기’ 등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

12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빛나라는 누리꾼이 서우를 외국인으로 보고, 차별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보고도 반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빛나라는 누리꾼의 발언에 동조하며 서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빛나라가 누리꾼에게 폭력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빛나라의 개인 방송에 함께 참여하다가 갈등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개인 방송을 보는 누리꾼들의 부적절한 댓글이 나타나 있다.

③ 빛나라는 일상 대화에서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누리꾼들은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우와 지혜는 상처를 받았고, 빛나라는 친구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상 및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언어 예절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서우와 지혜는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했어.”, “시험 기간인데도 네 부탁이니까 들어준 거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우와 지혜가 내키지 않았지만 방송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빛나라는 방송 중에 안 좋은 댓글을 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떡해.”, “그러다 내 개인 방송 구독자 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와 같이 공격적으로 말했다.

15 ③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들어간 표현이므로, 언어 예절에 맞게 고쳐 쓴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246~249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④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④ **11** ③ **12** '나'

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13** ②

14 ③

01 이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자는 '나'이다. '나'는 작품 속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주인공이다.

02 (다)를 통해 '나'는 점순네가 마름이고 자신의 집은 소작농이라는 것을 밝히며, '나'의 어머니가 점순과 친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나'가 점순을 멀리했던 이유로 볼 수 있으므로, '나'는 점순네와 자기 집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03 [A]에서 점순은 자신의 호의가 '나'에게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상해 무안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까지 흘린다. 그러나 점순이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04 점순은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주려고 한 것이지만,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한 말은 소작농의 아들인 '나'에게 계층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사회 계층의 차이를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④ 감자를 먹어 보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05 '나'는 소작농의 아들, 점순은 마름의 딸로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나지만,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나'와 점순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 주면서 사춘기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주제로 전달하고 있다.

06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를 지닌 '노란 동백꽃'은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고 풋풋한 사랑이 시작됨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다. 점순은 노란 동백꽃이 아닌 닭싸움을 통해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07 ㉠에서는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하고 있고, ㉡에서는 점순네 닭이 '나'의 닭을 공격하고 있으며, ㉢에서는 '나'가 점순네 닭을 때리고 있다. 따라서 ㉣에서 점순은 자신의 수탉이 '나'의 닭에게 반격을 하고 있으니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에서는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하여 점순네 수탉이 피를 흘리고 있다. 따라서 '나'는 고추장을 먹인 보람을 느끼며 신날 것이고, 점순은 언짢음을 느낄 것이다.

③ ㉣에서는 점순네 닭이 '나'의 닭을 공격하고 있으므로 '나'는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⑤ ㉢은 '나'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때리고 있는 상황으로, 점순을 골탕 먹여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길동은 출생이 천하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고, 형을 '형'이라 못 하고 있다. 즉 길동이 호부호형을 못 하는 이유는 아버지, 형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길동은 (나)에서 신분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② 길동은 (라)에서 집을 떠나기로 한 결심을 밝히고 있다.

③, ⑤ 열자 신분으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규칙 때문에 호부호형과 입신양명을 할 수 없어서 갈등하고 있다.

09 ㉠을 통해, 당시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축첩제도와 양반과 중(천민)을 구분하는 신분 차별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언어폭력이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인물들이 한 말은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11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면 상대방과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약속에 늦은 친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좋다.

- 12 ㉔에서는 '나'를 주어로 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전화를 받지 않은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고 있다. 반면 ㉕에서는 '나'를 주어로 하여 걱정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앞으로는 전화를 해 달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를 주어로 했다는 내용을 썼다.	☐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하여, 앞으로 바라는 점을 말했다는 내용을 썼다.	☐

- 13 '까다롭고 예민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열정이 많고 세심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㉔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꾼 것 외에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꾼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⑤ 부탁을 할 때는 명령하는 표현보다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③ '너'를 주어로 하여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거나 비난하기 쉬우므로,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④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 14 <보기>에서 누리꾼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250~251쪽

01 점순네 집은 마름이고 '나'의 집은 그 땅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소작인이다. 점순네에 잘못 보이면 '나'의 집은 쫓겨날 수도 있으므로 '나'가 일부터 점순을 멀리하는 것이다.

02 자신이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03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나'와 점순 사이에 생긴 따뜻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04 누리꾼의 댓글에 상처받은 친구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비난하였다.

05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한 뒤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

06 댓글 때문에 마음이 아팠구나. 너희들은 처음 하는 방송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해.

- 01 (가)에 따르면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은 마름의 딸이다. 점순네에 잘못 보이면 '나'의 집은 쫓겨날 수도 있으므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과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평가 기준	확인
점순네 집과 '나'의 집의 관계를 알맞게 썼다.	☐

- 02 점순은 자신이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하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지고 눈에 눈물까지 어린다. 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감자(점순의 호의)를 거절당한 일로 점순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03 '나'와 점순이 겪던 갈등은 '노란 동백꽃'으로 쓰러지며 해소된다. 또한 노란 동백꽃은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로 이 글의 주제인 '나'와 점순의 따뜻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따뜻한 사랑인 이 글의 주제와 관련 지어 알맞게 썼다.	☐

- 04 이 글에서 빛나라는 누리꾼의 댓글에 상처받은 친구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친구들을 비난하며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빛나라가 친구들을 비난하며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 05 자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빛나라가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 06 ㉔에서 빛나라는 방송에 처음 참여하는 친구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방송에 처음 참여하는 친구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댓글 때문에 상처받았을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52~255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① 09 ⑤ 10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기,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11 ② 12 ③

01 이 글은 사춘기 소년인 '나'와 소녀인 점순이 갈등을 겪으면서
 짝트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해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02 마름인 점순네는 '나'의 가족이 집이 없어서 곤란할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직접
 집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가)의 서술자 '나'는 점순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데도 알
 아채지 못한다. 이에 서술자가 점순의 마음을 모르고 점순에
 대해 설명할 때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
 는 '나'와 점순의 마음을 모두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점순에 대
 한 설명에 해학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시점, <보기>는 작품 밖
 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가)는 점순의 행동에 대해 '긴치 않은 수작', '이놈의 계집애가 미
 쳤나'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가)는 '나'의 시점이므로 '나'의 심리만 서술하고 있지만, <보기>
 는 '나'와 점순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고 있다.
 ④ <보기>의 서술자는 점순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웃으며 관심
 을 끌고자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나'는 점순
 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04 (라)에서 닭싸움은 점순이 먼저 걸고 있는 것으로, 점순은 이
 러한 행동을 통해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나'가 점순을 이겨 보기 위해 닭싸움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점
 순이 닭싸움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③ 점순네 수탉은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
 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의 수탉은 점순네 수탉과 싸우
 고 나면 피가 흐르고는 하였다.
 ④ 점순은 틈틈이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쌈을 붙여 놓는다고
 하였다.
 ⑤ 점순은 일부러 닭싸움을 시키며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05 “감자가 식기 전에 빨리 먹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표현
 이다. 준중하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감자를 먹어 볼래?”와 같
 이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6 점순은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후부터 닭싸움을 시키며 '나'를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라는 말의 뜻
 은 “앞으로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07 이 글에서 인물의 성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서 갈등
 을 겪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고전 소설에는
 대부분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오답 풀이 ① 달빛을 구경하던 공이 서성거리는 길동을 우연히 만
 나고 있다.
 ② 길동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신분제 사회에서 열자로 태어나 원하

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길동의 독백과 (다)의 길
 동과 흥 판서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③ 길동은 현실 제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지만, 공은 현실 제도
 에 순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⑤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중기에는 양반과 종을 구분하여 차
 별하고,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으며, 공자·맹자의 학문과 문관을
 중시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08 (나)에서 길동은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
 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갈
 등하고 있다.

09 책의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은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
 어폭력은 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에서는 ‘너’를 주어로 하여 청소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고, “너도 청소해!”라고 하며 명령하듯 말하고 있다. 반면
 ㉢에서는 ‘나’를 주어로 하여 청소하기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같이 청소하지 않을래?”라고 하며 제안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를 주어로 했다는 내용을 썼다.	☐
제안하는 표현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썼다.	☐

11 ㉡에는 차별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주식 초보
 자를 ‘주린이’라고 표현하여 ‘어린이’에 빗대는 것이 차별적 표
 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반팔 티’는 팔이 불편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므로 ‘반소매 티’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얼굴색을 ‘살색’으로 말하는 것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지체 장애인’을 비교하는 말을 ‘정상인’이라 할 경우, ‘지체 장애
 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인’을 ‘비장애
 인’으로 고쳐 표현해야 한다.
 ⑤ ‘촌티가 풀풀 나던’은 시골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12 <보기>를 통해 같은 내용이라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느
 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하는 데 따라서 아주 다르게 들린다.’는 의미의 속담 ③이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말은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②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뜻이 있다는 뜻의 속담이다.
 ④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끝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의미의 속담이다.

4 문제를 풀어내는 슬기로운 방법

0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60~261쪽

- 1 (1) 공동 (2) 의견 (3) 원탁 토의
2 (1) ○ (2) ×
3 (1) 사회자 (2) 토의자 (3) 협력적
4 (1) 패널 (2) 주제 (3) 근거 (4) 청중
5 (1) ○ (2) × (3) × (4) ○

제재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

스스로 확인하기

266~273쪽

- (1) × (2) × (3) ○ (4) 비난 (5) ○ (6) × (7) 질문 (8) ○
(9) 제작 비용 (10) ○ (11) ○ (12) ×

내용 확인 문제

266~273쪽

- 1 패널 토의 2 ④ 3 ⑤ 4 ③ 5 ⑤ 6 ③ 7 ③
8 ① 9 분실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10 ④ 11 ④ 12 ⑤

- 1 이 토의는 교내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의로, 분실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패널 토의이다.
2 토의의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할 때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도중에는 토의자 간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의를 마무리한다. 사회자가 토의의 종류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3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이동하자는 것은 윤서의 의견이다. 윤서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 분실물 보관함은 4층 복도 구석에 있어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4 앞서 발표한 윤서의 제안(분실물 보관함의 위치 이동)에 대해 준후가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윤서가 답변하고 있다. 이는 토의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이다.

- 5 우주는 이 토의의 사회자로,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회자가 아니라, 토의자인 패널의 역할이다.

오답 풀이 ① 우주는 윤서, 준후, 신비의 제안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②, ④ 신비가 다른 사람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우주는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우주는 각 토의자의 제안 후 토의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토의 순서에 맞게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6 ①의 신비는 준후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준후의 의견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이다.

- 7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물건의 종류를 미리 조사하여 다른 토의자의 제안에 대해 질문한 사람은 신비가 아니라 윤서이다.

- 8 청중은 토의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짚어 주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한다. 토의를 이끌며 토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 9 폐기하는 물건 중에서 상태가 좋은 물건을 골라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는 준후의 말에 대해, 신비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분실물 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 10 이 토의는 패널 토의로, ‘토의 주제와 토의자 소개(ㄷ) - 토의자의 제안 발표(ㄹ) - 토의자 간 의견 교환(ㄱ) - 청중과의 질의응답(ㄴ) - 토의 마무리(ㄴ)’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고 자료

토의의 일반적인 절차

토의 준비하기	토의 주제와 토의 방식을 정하고, 토의 내용을 마련한다.
토의하기	토의 참여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정한다.
토의 내용 정리하기	토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를 마무리한다.

- 11 이 토의에서는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토의자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는 토의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토의는 사회자인 우주의 진행에 따라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② 이 토의는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라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세 가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③ 이 토의에서 청중인 주리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있다.
⑤ 이 토의에서 신비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교생의 이름 스

티커를 제작하겠다는 의견을 철회하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 12**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274~279쪽

1 ④ 2 ⑤ 3 ④ 4 ① 5 ①

- 1** 토의자는 토의 주제와 관련한 제안을 발표하고 제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 다른 토의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간다. 그러나 토의자가 사회자와 청중 사이의 질의응답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토의 참여자의 역할

사회자	-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함. -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 -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함.
토의자	- 토의 주제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함. - 다른 토의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함.
청중	- 토의 내용을 집중해서 들음. - 토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발언의 기회가 있을 때 질문함.

- 2**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방 의견의 일부를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④ 윤서는 상대방의 의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말하며 공감한 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상대방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인 신비와 달리,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

③ 윤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3** 이 토의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제안하고, 또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가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인데, 이 토의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 4** 토의 주제는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 상황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①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갈리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5**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양의 음식을 배식하는 것은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두에게 같은 양을 배식하면 적게 먹는 사람은 음식을 남기게 되고, 많이 먹는 사람에겐 음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해력 키우기

281쪽

1 ○ 2 ○ 3 × 4 ○ 5 배치되어 6 혼잡하니
7 검토했다 8 대등해서 9 단편적 10 근본적
11 경쟁적 12 합리적

확인 문제

283쪽

1 문제 상황 2 협력적 3 제안 4 질의응답 5 ㉠
6 ㉡ 7 ㉢ 8 경청 9 존중 10 방안

발전 활동

활동 응용 문제

284~285쪽

1 ④ 2 ③

- 1** 토의할 때 활용할 자료는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토의에서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데시벨(dB)에 따른 소음 기준표를 제시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의 인터뷰로 층간 소음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소음을 흡수하는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하며 층간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의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다른 아파트에서 방송한 층간 소음 예방 음성 파일을 제시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2** 제시된 토의에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 있는 집단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 소방관은 '○○ 아파트'나 층간 소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286~291쪽

- 01 ② 02 ③ 03 공동의 문제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③ 0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캠페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이 아닌 공
 로상을 준다. 14 ④ 15 ④ 16 ⑤ 17 ③
 18 ⑤ 19 ④ 20 ② 21 ⑤

0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① 토의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치는 것은 토론에 해당한다.

④ 토의를 통해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사회자가 최종 합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쟁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는 토론에 해당한다.

02 원탁 토의는 열 명 내외의 토의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로, 청중이나 토의자와 같이 역할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토의의 유형

패널 토의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
원탁 토의	열 명 내외의 토의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심포지엄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식으로 의견을 발표한 뒤 청중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토의
포럼	의견이 서로 다른 토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청중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며 함께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토의

03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의를 할 때는 상대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력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토의 참여자 중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할 때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중간에는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끈다. 그리고 토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토의를 마무리한다.

오답 풀이 ① 토의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② 청중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토의자의 역할이다.
 ④, ⑤ 토의를 시작할 때 문제 상황을 알리면서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05 학생들은 학교 분실물이 늘어 보관함이 꽉 찬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토의의 논제로는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분실물 보관함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분실물이 많은 것이 문제 상황이므로 '어디에 설치할까?'라는 논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신비가 이름이 안 적힌 분실물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대화에서 문제 상황의 핵심은 분실물 보관함에 분실물이 많아서 꽉 찬 것이다.

④, ⑤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나 학생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06 신비는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분실물 보관함 속 물건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소지품에 이름 스티커를 붙이자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윤서는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②, ③ (다)에서 준후는 캠페인을 통해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보여 주어 학생들이 찾아가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라)에서 신비는 분실물이 너무 많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07 (가)에서 우주가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는 분실물 보관함이 넘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토의를 준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8 <보기>는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자료로 제시하면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간단한 내용을 복잡하게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서 우주는 패널인 윤서, 준후, 신비의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토의의 순서에 따라 토의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진행하고 있다.

10 (나)에서 분실물 보관함을 먼저 정리하자는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윤서는 정리 담당자를 두고 돌아가면서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리 담당자 한 명을 정하여 분실물 보관함의 정리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1 신비는 준후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비난하는 태도로 말하여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발언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토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

-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말한다.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한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여들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한다.
-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적인 자세로 토의에 참여한다.

12 (가)에서 신비는 준후의 발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으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를 협력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신비의 태도에 주의를 준 것이다.

13 (가)에서 신비는 '분실물 찾아 주는 날'에 학생들에게 줄 상품을 어떤 돈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나)에서 윤서는 학생들에게 상품이 아닌 공로상을 주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학생에게 상품이 아닌 공로상을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윤서는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물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래프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15 신비는 ㉠과 같이 이름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도 붙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름 스티커의 제작 목적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 같이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물건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용품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겠다고 하였다.

16 이 글은 토의자와 청중의 질의응답 과정으로, 토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가윤과 시우는 청중으로, 토의자들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② 다른 토의자가 의견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토의자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토의자들은 제시된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찾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 ④ 사회자는 토의를 이끌어 가면서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을 뿐, 의견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내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17 토의의 최종 합의안은 (나)에서 우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자는 의견은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18 ㉠과 ㉡은 모두 앞서 말한 청중과 토의자의 의견에 대해 좋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토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윤서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에서 신비는 준후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에서 신비는 준후의 의견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긍정적인 효과를 밝히며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에서 윤서는 미리 조사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으나 ㉡에서 신비는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은 ㉠과 ㉡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19 카드 뉴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뉴스이다. 이러한 카드 뉴스는 광고나 만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주로 공적·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카드 뉴스

개념	•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뉴스임. • 이미지와 간략한 글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구성함.
장점	가독성이 좋고 간편함.
단점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다룰 수 있음.

20 이 카드 뉴스에는 아파트, 공동 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와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21 토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토의는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토의이므로, 층간 소음 외에 각종 민원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02 주장하는 글 쓰기

소단원 한눈에 보기

294~295쪽

1 (1) 논리적 (2) 문제 상황 (3) 이유 (4) 결론

2 (1) ○ (2) ×

3 (1) 타당성 (2) 개요 쓰기

4 (1) 설득 (2) 서론 (3) 뒷받침

5 (1) ○ (2) ×

6 (1) 설득력 (2) 근거

스스로 확인하기

307쪽

(1) 과다 사용 (2) × (3) 인간관계

활동 응용 문제

298~311쪽

- 1 ⑤ 2 ② 3 ⑤ 4 ③ 5 ④ 6 ⑤
7 ① 8 ⑤ 9 ② 10 자료를 수집한다. 근거를 마련한다. 11 주장, 이유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③

1 신비는 자신의 주변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눈의 피로, 건조감, 시력 저하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신비는 보행 중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을 보고 자칫하면 사고가 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신비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다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놀라고 있다.

④ 신비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보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신비네 모듬은 앞에서 파악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 상황에 따라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글 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의 분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신비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서 글을 써 보겠다고 하였으므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신비네 모듬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이 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에 대한 내용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고, 글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5 ‘이유 3’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가족과 다툼 경험을 조사한 설문이 ‘이유 3’의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1’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이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서론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처음-가운데-끝’은 설명하는 글에서 주로 활용하는 형식이며 이 글과 같이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준후와 윤서가 이와 같은 형식을 점검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7 이 글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을 담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내용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내용의 통일성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

통일성

통일성이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글의 각 문장들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글을 고쳐 쓸 때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없는지, 각 문장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지 평가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글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고,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8 이 글은 학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글이 학교 신문이라는 매체를 고려하지 않고 긴 글로 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의 일반적인 형식인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글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과 함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③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근거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은 독자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9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유로 내세워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만, ②의 휴대가 간편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10 근거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1 주장하는 글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2 주장하는 글의 근거가 될 자료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

13 청소년을 독자로 하여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카페인 음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카페인 음료의 섭취가 청소년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카페인 음료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4 이 글의 개요 중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대신,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지키자고 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이유 2'에 자료를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유 3'은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가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으로, 중학생의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가 심각하다는 글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문제 상황과 글을 쓴 목적을 밝힘.
본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함.
결론	본론을 요약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함.

15 이 글은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줄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의 심각성이나 위험성 등을 다룬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기호식품의 종류 및 그 선호도는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16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는 출처가 명확한지, 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몇 개의 매체를 활용하였는지는 점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고쳐 쓰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

- 주장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근거가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 주장과 이유,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문해력 키우기

313쪽

- 1 정의 2 논증 3 이상 4 억압 5 ○ 6 ×
 7 × 8 ○ 9 ㉠ 10 ㉡ 11 ㉢ 12 ㉣

확인 문제

315쪽

- 1 ○ 2 × 3 × 4 ○ 5 명료하게
 6 일관되게 7 설득력 8 ㉣ 9 ㉡ 10 ㉠

발전 활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활동 응용 문제

316~317쪽

- 1 설득 2 ㉣

1 마틴 루터 킹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연설은 이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며, 이러한 연설을 위해 쓴 글이 연설문이다.

참고 자료

연설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개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방식	
구성 요소	연설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청중	연설을 듣는 사람
	메시지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2 연설자가 제시한 ‘꿈’을 통해 연설자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연설자는 ‘주권 우위’, ‘연방 법령 실시 거부’를 내세우는 엘라 배미주에서 흑인 소년·소녀들이 백인 소년·소녀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게 되는 날을 꿈꾼다. 즉 연설자는 ‘주권 우위’를 내세우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318~321쪽

- 01 ③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⑤ 10 ⑤ 11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12 ② 13 ③ 14 인종 차별 15 ④

- 01 (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과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보며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L. 스마트폰을 볼 때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우울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C. 스마트폰이 없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나)에서 신비와 친구들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계획하기 단계가 아니라 개요 쓰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문제 상황 파악하고 계획하기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한 후에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쓸 계획을 세운다.
근거 마련하기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때 근거가 될 자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어야 하며, 주장이나 주장의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개요 쓰기	내용을 마련하여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개요를 쓴다.
글쓰기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력 있는 글을 쓴다.
고쳐쓰기	쓴 글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고쳐 쓴다.

- 03 (나)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라는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②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아닌 '전기·전자 폐기물' 문제에 대한 자료이므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4 (가)에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는 '근거 마련하기'이다.

- 05 ㉔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자료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 중 중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는 내용의 자료로, 스마트폰의 수가 급증한 이유와 관련이 없다.

② ㉔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이며, 조사 기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③ ㉔은 책의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⑤ ㉔은 스마트폰이 인간관계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06 (나)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서론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나열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덧붙이며 마무리하고 있다. 본론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7 ㉔은 스마트폰을 대신할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유 2'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처럼 내용이 통일성 있게 전개되도록 '이유 2'와 연관된 내용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8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제시할 자료는 주장이나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무조건 많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 출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09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나)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추락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적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0 ㉔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고 독자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11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에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스마트폰, 지나친 사용은 금물'로 고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고쳐 쓴 후의 제목에는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을 썼다.	☐
3여절로 썼다.	☐

- 12 연설자는 흑인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연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이 연설에서는 인종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③ 이 연설에서는 미국의 건국 신조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또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문장과 어휘를 반복하는 등의 전략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들끓는 앨라배마’와 같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주(州)를 언급하고 있다.

⑤ 이 연설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 연설자는 인종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즉 흑인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를 꿈꾸는 것이다.

14 이 연설은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5 이 연설에서는 미국의 건국 신조를 직접 인용하고 있을 뿐,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이라고 표현하고,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는 등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장과 ‘자유’, ‘희망’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③ 미국의 건국 신조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조지아, 미시시피, 앨라배마와 같은 미국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328~331쪽

- 01** ① **02** ③ **03** 윤서: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긴다. / 준후: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신비: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인다.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③ **09** ④ **10** ⑤ **11** ④ **12** ②

01 (가)와 (나)는 분실물이 많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분실물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②, ③ 토의는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경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토의 참여자는 주제에 맞는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⑤ 일상생활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는 모두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02 (가)는 토의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사회자가 토의 주제와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토의자가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는 단계이다. 윤서는 토의자로서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우주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자, 윤서, 준후, 신비가 차례대로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는 방법을, 준후는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신비는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04 (나)에서 준후는 캠페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윤서는 상품을 주기보다는 공로상을 주자고 하며 준후와 의견이 다른 지점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신비는 준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으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다. 또 준후의 의견을 비난하는 투로 지적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윤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차분하게 토의에 임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와 다른 자신의 의견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궁극한 점은 추가로 질문하고 있다.

05 (나)에서 준후가 폐기하는 물건 중에서 상태가 좋은 물건을 골라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고 하자, 신비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이에 동의하고 있다. 기부보다는 분실물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라)의 우주의 말을 통해 이 토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알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분실물을 줄이는 노력을 하되, 그래도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답 풀이 ㄱ.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담당자가 돌아가며 정리하기로 하였다.

ㄴ.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가)에서 신비는 “제가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비가 다른 토의자에게 질문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가)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쓸 계획을 세우는 ‘계획하기’ 단계이며, (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 마련하기’ 단계이다. (다)는 (나)에서 마련한 근거를 토대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개요를 작성하는 ‘개요 쓰기’ 단계이다.

09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할 때는 독자의 지식수준, 관심,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글쓴이의 지식수준은 따로 확인할 내용이 아니다.

10 ㉔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본론-이유 2’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고가 난 다양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 중 ㉠은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은 사회성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본론-이유 3'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한 내용인 ㉢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④ ㉣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론-이유 1'에서 활용할 수 있다.

11 <보기>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가 우리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내용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것이다. 이 게시 글에는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12 (다)의 '결론'은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고려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고쳐 써야 한다. 글의 흐름상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내용이 결론으로 적절하며, ②와 같은 내용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332~333쪽

01 이 토의의 사회자는 우주이다. (가)에서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 및 토의 순서를 소개하고 있고, (나)에서는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끌고 있다.

02 분실물을 보여 주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건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03 신비는 준후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준후의 의견을 비난하여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반면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후의 발언 내용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4 독자인 또래 중학생들의 수준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05 이 글의 주제인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01 (가)는 토의의 시작 단계로,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나)에서는 토의 분위기가 과열되자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토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사회자가 우주임을 썼다.	☐
(가)에서 토의 주제와 토의자, 토의 순서를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나)에서 토의를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2 (가)에서 준후는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 학생들은 분실물 보관함에 어떤 분실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분실물을 직접 보여 주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친구의 물건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학생들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학생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신비는 준후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여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준후의 의견을 비난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윤서는 준후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준후의 발언 내용에 일부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바람직하지 않은 신비의 토의 태도를 알맞게 썼다.	☐
바람직한 윤서의 토의 태도를 알맞게 썼다.	☐

04 <보기>에서 신비와 친구들은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기로 계획했다. ㉠의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과 같은 의학 용어는 독자인 또래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므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가 또래 중학생들임을 알맞게 썼다.	☐
독자에게 어려운 단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썼다.	☐

05 이 글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보행 중 주의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는 행동을 지칭한 것으로, 추락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즉 ㉠은 주제와 관련이 없고 글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1 ⑤ 02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 대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자는 내용을 강조한다.

03 ③ 04 ③ 05 ① 06 ④

01 (다)는 토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토의에서 합의된 결과를 사회자가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즉 사회자가 최종 합의를 결정 한 것이 아니라, 토의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사회자가 정리하여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02 (나)에서 신비는 다른 토의자, 청중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교생의 이름 스티커 제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의 제안을 철회하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자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안을 수정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캠페인을 할 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남기자는 내용을 강조하기로 하였음을 알맞게 썼다.	☐

03 ㉠, ㉡은 토의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제시된 준언어적 표현 중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표정과 몸짓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⑤ 말의 크기와 억양 등이므로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 ㉡의 발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참고 자료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에 수반되어 의미 작용을 하는 말의 속도나 크기, 발음, 억양, 어조 등을 의미한다.
비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선이나 표정, 몸짓, 자세, 복장 등을 의미한다.

04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주장은 다양하게 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05 <보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서론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06 ㉡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앞부분인 본론과 문단이 나누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터는 문단을 나누어 본론과 결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고쳐 써야 한다. ㉢

역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글의 주장과 같은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이 글의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② '거북 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과 같은 단어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쉬운 단어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⑤ 주장하는 글에서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고쳐 써야 한다.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



틀린 문제

나만의 정리